

碩士學位論文

濟州國際自由都市 추진에 따른
初·中等教育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110.8.4.0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元潤秀

濟州國際自由都市 추진에 따른 初·中等教育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富 燦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7月 日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元 潤 秀

元潤秀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日

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問題의 提起	1
第 2 節 研究의 目的	4
第 3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범위	6
第 4 節 研究 分析의 틀	7
1. 연구 분석의 틀	7
2.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9
第 2 章 濟州國際自由都市의 意義 및 推進 概要	13
第 1 節 國際自由都市의 意義	13
1. 개념정립	13
2. 자유도시(지역)의 계획수립 변천사	14
第 2 節 濟州國際自由都市 推進 概要	16
1. 추진목표	16
2. 추진전망	17
第 3 節 濟州國際自由都市 教育部門 戰略	18
1. 교육의 과정부문	18
2. 교육의 의식부문	27
3. 교육의 법·제도부문	33
第 3 章 地域社會 教育改革의 理論的 背景	37
第 1 節 教育의 價值	37

1. 교육의 수단적 가치	37
2. 헌법과 교육	38
第 2 節 地域社會와 教育	39
1. 지역사회와 교육변화의 의의	39
2. 지역사회와 교육의 역할	40
3. 지역사회와 교육개혁	41
4. 지역사회와 교육부문 전략	44
第 3 節 教育規制 改革	45
1. 배경	45
2. 추진방향	45
3. 교육규제의 문제	47
4. 향후 교육규제 완화 정책	49
 第 4 章 初·中等 教育 實態分析 및 問題點	51
第 1 節 教育의 課程部門 實態 및 問題點	51
1. 교육의 과정부문 실태	51
2. 교육의 과정부문 문제점	63
第 2 節 教育의 意識部門 實態 및 問題點	64
1. 교육의 의식부문 실태	64
2. 교육의 의식부문 문제점	72
第 3 節 教育의 法·制度部門 實態 및 問題點	74
1. 교육의 법·제도부문 실태	74
2. 교육의 법·제도부문 문제점	79
 第 5 章 國際自由都市 推進과 初·中等教育部門 改善方案	80
第 1 節 教育의 課程部門 改善方案	80
1. 초·중등교육과 연계 추진방안	80

2. 외국어교육 개선방안	82
3. 지식정보화·세계화 교육방안	84
4. 학생 및 우수교사 확보방안	87
第 2 節 教育의 意識部門 改善方案	89
1. 제주인 정체성 교육방안	89
2.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방안	91
3. 평화의 섬 구축을 위한 '평화교육' 방안	94
第 3 節 教育의 法·制度部門 改善方案	97
1. 교육규제 자유지역 모형 개발방안	97
2. 기초교육 전문가 정책참여방안	100
第 6 章 結 論	101
參考文獻	105
ABSTRACT	109
附 錄	113

表 目 次

<표 1-1> 설문조사 대상	5
<표 1-2> 조사영역과 설문내용	10
<표 1-3> 응답자 배경변인별 분포현황	11
<표 2-1> 교육현황과 문제점	20
<표 2-2> 해결전략과 제안방향	20
<표 2-3> 전국 제주 대비 각급학교 진학률 변화 추이	24
<표 2-4> 전국 제주 대비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학생수 비율	24
<표 2-5>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	25
<표 2-6> 제2차 교육개혁 추진과제	29
<표 2-7> 표준산업분류번호 및 공공기능	34
<표 4-1> 제주도내 학생 인식도	52
<표 4-2>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연계 추진 필요성 인식도	53
<표 4-3> 학생이 느끼는 외국어(영어) 능력 수준 실태	54
<표 4-4>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 외국어(영어) 능력 수준 실태	55
<표 4-5> 외국어 학습 능력 장기적 배양 방안	56
<표 4-6>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 실태	58
<표 4-7>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 강화 방안	59
<표 4-8> 국제자유도시 관련 제주출신 우수학생 도내 거주 희망도	60
<표 4-9> 우수학생 학부모 자녀 도내 거주 희망도	61
<표 4-10> 교육 제도적 부문 우수학생 유치방안	62
<표 4-11> 우수교원 확보방안	62
<표 4-12> 초·중학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65
<표 4-13> 제주문화 정체성 보존방안	66
<표 4-14> 학생들이 인식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공 가능성	67

<표 4-15> 학생의 최종학력 진로 희망도	67
<표 4-16>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직업진로 선호 실태	68
<표 4-17> 산학협동 프로그램 참가 희망시기	69
<표 4-18>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69
<표 4-19> ‘평화교육’ 인식 실태	71
<표 4-20> 평화교육의 주체	71
<표 4-21> 평화교육 내용에 비중을 두어야 할 과제	72
<표 4-22> 교육규제의 정도	75
<표 4-23> 심각한 교육규제 분야	76
<표 4-24> 교육규제 개혁 방향	77
<표 4-25> 교육규제 완화 대상 설정 범위	77
<표 4-26> 기초교육전문가 정책 참여 필요성	78
<표 5-1> 외국어 교육의 순서	82
<표 5-2> 2020년도 개별적 직업능력의 중요성	92

그 림 目 次

<그림 1-1> 연구분석의 틀	8
------------------------	---

第 1 章 序 論

第 1 節 問題의 提起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주도의 현실적 조건 위에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 제주도의 발전을 전망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현실에 대한 이해의 차이, 제주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견해차 등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어떤 보편적인 제주도의 발전 전망을 도출해 내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0여 년간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개발 중심의 철학으로 제주도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제주도 당국과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의 입장에서 제주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여 개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시민단체간에 첨예한 갈등이 지속돼 왔다. 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이 선출하는 민선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긴 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고 난 뒤 제주지역 경제가 악화되면서부터는 개발 중심의 논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도의 발전 전망을 국제자유도시에서 찾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란 국내법 적용에 우선하여 사람, 자본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장소다. 따라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경우 국내외 기업들이 제주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것이며, 그 결과 제주지역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문화적, 복지적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¹⁾

지금 다시 추진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새롭게 변화된 여건과 환

1) 제주도교육청,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 2000, p.3.

경 속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²⁾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21세기의 역동적인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본다.³⁾

1999년 6월, 정부를 대표하는 건설교통부와 미국의 '존즈 랑 라살르사'(Jones Lang LaSalle; JLL)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0일 과업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현재 그 용역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00년 6월에는 최종 용역 실시 결과가 완료되고 정부와 여당차원의 정책추진 기구 및 이에 대한 예산규모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연구수행 과업이 2011년(10년간) 까지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2001년 10월(10개월)까지 진행 중에 있다.⁴⁾

그러나 제출된 용역내용을 보면 초·중등기초교육 부문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⁵⁾ 대부분 경제분야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 기초교육에 대한 구체

2) 김부찬, "제주도국제자유도시의 의의 및 법·제도적 문제", 「제주발전연구」, 제3호, 1999, p.110.

3) 지금까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98년 9월 25일 : 대통령 제주 순방시 국제자유도시 지정 건의

② '98년 10월 16일~21일 :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관한 도민여론조사 실시(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③ '98년 10월 19일 : 국제자유도시 기획단 구성

④ '98년 10월 20일~30일 : 국제자유도시 기본 구상(안) 마련

⑤ '99년 1월 22일 :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제주지방자치학회)

⑥ '99년 2월 1일 :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삼성경제연구소, 외교관, 학자 등 참여)

⑦ '99년 3월 5일, 9일 : 주한 EU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회원 초청 토론회 개최

⑧ '99년 3월 15일 : 국제자유도시 구상(안) 대통령 보고

⑨ '99년 3월 30일 : 국제자유도시(안) 국무회의 보고(건설교통부)

⑩ '99년 6월 12일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예산 확정

⑪ '99년 8월~2000년 6월 : 제주국제자유도시 용역업체(JLL) 선정, 계약체결, 용역 수행

⑫ 2000년 8월~12월 : 국제자유도시 중앙부처별 설명 및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민주당 등과 당정협의 과정 이행, 제주도 업무보고시 김대중 대통령,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약속

자료 : 김부찬, 위의 논문, p.111.

4) 2001년 1월 정부지원단이 구성되고, 2001년 2월 새천년 민주당의 정책기획단이 구성되었음.

5) 제주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0, p.216.

적인 방안이나 비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21C 교육방향을 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1년 1월 취임 후 첫 작품으로 교육개혁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초·중등교육을 중점적으로 개혁, 모든 공립학교를 학습과 고도의 가치기준 및 성취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하여 학교는 소외된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높은 수준의 학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하며 21C를 대비한 교육개혁의 초점을 초·중등기초교육에 맞추고 있다.⁶⁾

21C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육 사이에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시행착오적인 측면도 보이지만, 비교적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학습자료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배울지라도, 중학교에 가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만을 배우고 익히는 암기위주의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상황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⁷⁾

결국 이러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는 계속적으로 진보하므로 이러한 지식·기술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알맞은 교육적 대응이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⁸⁾

현재 제주도 초·중등교육 정책기구인 교육자치기관에서는 인성, 세계화, 정보화 교육 및 외국어교육 분야에 21C 시대변화에 다각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할 경우 명실공히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상호보완적 정책추진이 될 것

6) 김종낙, “교육정보”, 「교육마당21」, 3월호, 2001, p.28.

7) 정진곤, “학교교육과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반성과 과제」(새교육공동체위원회, 2000), p.35.

8) 권용희, “국제화시대의 사회인식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p. 45~46.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모든 도민과 자치단체와 함께 교육부분에서도 더불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第 2 節 研究의 目的

국제화시대의 제주기초교육을 논의하는 우리의 관심은 국제화 또는 세계화에 대응하여 어떤 교육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인답게 잘 사는 삶’을 돋는다는 측면에서 제주교육의 본연이 어떻게 관련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다.⁹⁾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비한 용역보고서 내용 중 3대 핵심 추진과제에서 제외된 초·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자유도시 핵심추진과제 추진에 따른 초·중등교육 연계 필요성과 중요도를 조사, 분석한다.

둘째, 교육관련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초·중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교육규제 부문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 참여 방안 및 교육규제 자유지역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넷째, ‘평화의 삶’ 구축에 따르는 내·외국인과의 이질성 해소를 위하여 평화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내용 및 방법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에 대비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들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9) 김종수,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한울, 1995), p.34.

第3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였다. 하나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한 실증적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문헌을 통한 연구이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관내 중·고등학생 및 교직원(학부모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표본수는 학부모, 교직원 등 성인과 학생이 각각 388명으로 모두 776명이며 신뢰도는 $\pm 5\%$ 범위이다. 설문지는 미회수, 불성실 답변자 발생을 고려하여 유효표본 수보다 각 12배 많은 800명에게 배부·조사 하였다. 또한 현직 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통계의 처리방법은 각 응답자들의 배경에 따라 각기 제시된 의견을 SPSS 7.5 팩키지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로서 아직 선행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각 부문 주제별로 연구된 관계 및 학계 연구물과 그 밖의 관련있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및 유관기관 통계자료들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시사성 있는 언론 보도내용도 반영하였다.

<표 1-1> 설문조사 대상

지 역	교직원, 학부모				지 역	학 생		비 고		
	인원수					인원수	비 고			
	교육 행 정기 관	초	중	고교		중	고교			
제 주 시	40	80	40	40	제 주 시	50	52(인문)	남		
서귀포시			40	40	서귀포시	50	53(인문)	여		
북제주군			40		북제주군	50	50(실업)	공학		
남제주군			40	40	남제주군	50	45(실업)	공학		
계	400				계	400				

2. 연구의 범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심을 갖고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와 최종 수혜자는 결국 제주도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주도민의 의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새로운 전자시대는 지식·기술혁명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¹⁰⁾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연구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뿐만 아니라 다가온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세계화 및 지방분권화라는 광의적인 테두리 속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문제와 제주 기초교육과의 관계는 상호추진하는 기관이 서로 연계 진행하여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적 모델이 제시되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설문조사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의 범위는 제주시지역 일반계고, 중학교, 서귀포지역 일반계고, 중학교, 북제주군 지역 실업계고, 남제주군 지역 실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지역적 분포도 및 계열별로 특수성을 감안했으며, 학부모 및 공무원인 경우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답하게 하고, 각각 초·중·고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내용의 범위로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초·중등교육의 연관성, 핵심전략 추진 부문에 대한 교육의 과정부문 추진방안, 교육 법·제도부문에 대한 교육규제자유지역 설정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평화의 섬 구축을 위한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안, 그리고 의식교육의 활성화 및 도민의 가치추구를 위한 제주인 정체성 보존방안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응과 우수 인력 확충을 위한 도내학생들의 진로의식에 대한 앞으로의 선택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국제자유도시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보완하려고 한 점과, 둘째, 조사분석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위상과 역할을 제공하려는 연구취지

10)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 1995, p.77.

에서 교육이해관계자들을 조사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교육분야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이론적 근거제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넷째, 표집대상을 일반 도민보다는 교육공무원, 교육행정직공무원, 학부모, 학생에 한정하여 전체도민의 대표성에 약간의 의문이 없지 않으므로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第 4 節 研究 分析의 틀

1.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개발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2000. 6)가 완료되고 정부지원단 및 정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국제자유도시정책 기획단(2001. 2)이 발족되면서 어느 정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정부 및 제주도를 중심으로 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고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맡은 존스랑 라슬르사의 용역 보고서 내용을 연구 분석하여 보고서에 미진하게 포함되어 있는 초·중등 기초교육 분야의 연계적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미래 제주의 주역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며, 또한 일선에서 교육을 공급하는 교직 종사자는 교육현장의 주역인 것이다. 그러나 학생은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선택범위가 제한되어 왔으나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능력별·수준별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교과목 선택에 대한 재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탄력성 부여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가장 민감한 관광, 교육분야의 전략과제인 외국어 교육¹¹⁾ 향후 진로 문제, 학과목 선택¹²⁾ 등 매우 중요한 과정들이 초·중등기초교육 내용에 수

11)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외국어교육분야에서 년간 60시간이상 외국어(영어)교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초등4학년부터 고교까지 68시간에서 132시간을 배당하고 있으며 재량활동시간에 학교장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초·중등 교육과정)

1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11~12학년(고: 2,3학년)에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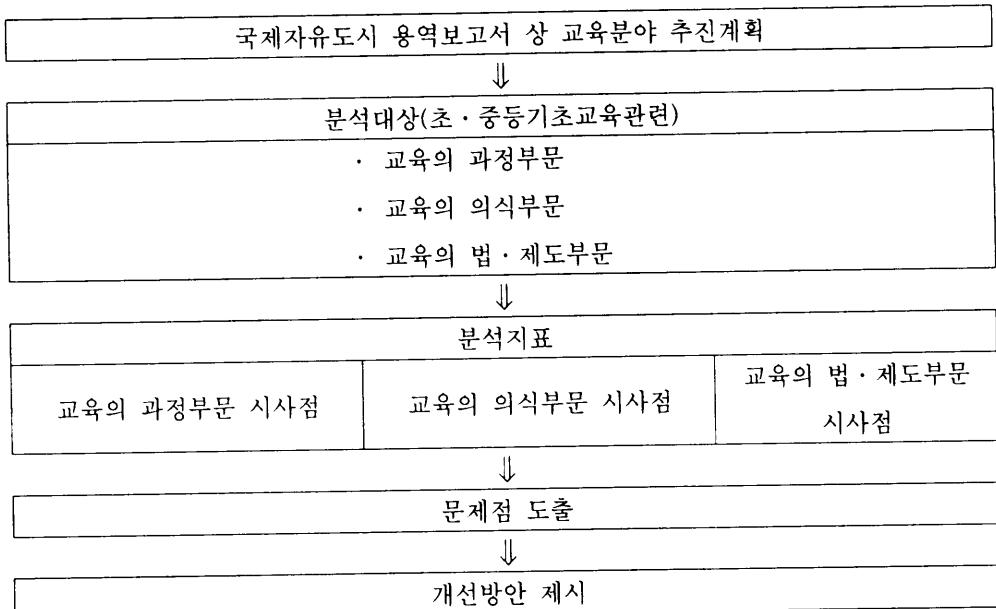
록되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학부모는 간접적인 교육의 수요자요, 요구자이며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할 지지자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으로 부상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중대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서 영향력 또한 증대되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중추기관인 제주도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행정기관은 수평적 기관이 아닌 잘 사는 제주도의 건설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동반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건립과정에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연계 필요성과 아직 정립되지 않은 ‘평화교육’ 등 정책적 측면에 대한 연구 및 분석도 함께 해보고자 하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을 도표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분석의 틀



질을 개발하도록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측정도구 및 자료 처리

1) 측정도구

설문내용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설문지 교직원·학부모용 등 15매와 학생용 15매를 제작, 교직원·학부모용은 제주시내 교육행정기관에, 학생용은 제주시내 중학교 5매, 제주시내 여자고등학교에 10매를 2001. 4. 6 ~ 4. 7(2일간) 사이에 배부·수집한 결과, 당초 교직원·학부모용 및 학생용 설문 맨 마지막 항목에 서술식 의견 제시를 요구한 부문에, 대부분이 작성을 기피하는 현상과 설문지 수집 협조자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설문내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의견에 따라 평이한 문장과 정책 사례배경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보완하였으며, 서술식 문항도 선택형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른 조사영역과 설문지 구성내용은 <표 1-2>와 같다.

2) 자료 처리

설문지는 교직원·학부모용(A) 400매와 중·고등학생용(B) 400매, 모두 800매를 배부하여 2001. 4. 9~4. 16(8일간) 사이에 활용이 가능한 설문지를 각각 교직원·학부모용(A) 391매와 학생용 390매, 모두 781매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을 활용, 일반적인 응답결과를 각 문항의 배경변인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s)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의미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산처리과정에서 각 문항별 단답서술형인 기타항목란에 응답이 없거나, 엉뚱한 답을 기재한 경우는 “무응답” 처리를 하였다.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분포현황은 <표1-3>과 같다.

<표 1-2> 조사영역과 설문내용

영 역	변 인		
배경변인	교직종사 공무원 및 학부모용	· 신분 A① · 성별 A② · 학력 A③ · 자녀수 A④ · 거주지 A⑤ · 나이 A⑥	
	학생용	· 학교 B① · 성별 B② · 나이 B③	
국제자유도시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 기대감 A⑦, B⑤ ·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인지도 B④ · 평화 교육 인지도 A⑩, B⑯ · 교육규제에 대한 인지도 A⑬ 		
국제자유도시와 초·중등 기초교육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외국어 구사 능력 정도 A⑩, B⑦ · 기초교육부문 과제 A⑪ · 기초교육과정의 연계 필요성 A⑧ · '평화교육'의 필요성 및 주체 A⑩, B⑯ · 지식 정보화교육과정 적정 여부 A⑬, B⑨ · 외국어 교육 교과과정 기여 여부 B⑧ · 교육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정도 A⑭ · 향후 진로 및 도내 거주 가능성 B⑥, B⑫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초·중등 기초교육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연계추진 방향 A⑨ · 외국어 교육방향 A⑪ · 제주인 정체성 교육 방향 A⑩, B⑪ · 평화교육의 방향 A⑪, B⑯ · 교육규제자유지역 설정 방향 A⑮, A⑯ · 학생 및 우수교사 확보 방향 A⑮, B⑯ · 지식정보화·세계화 추진방향 A⑫, B⑩ ·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 방법 B⑬ · 우수인력 확보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A⑭, A⑯, B⑯ · 기초교육 전문가 정책 참여 방향 A⑯ 		

* 설문은 교직원·학부모용(A)과 학생용(B)이며, 번호는 설문내용과 같음.

<표 1-3> 응답자 배경변인별 분포 현황

구 분		빈도수(개) Frequency	백분율(%) Percent	유효비율(%) Valid percent	누적비율(%) Cumulative percent
학 생	성별	남	159	40.8	40.8
		여	231	59.2	100.0
	연령별	중 14-17세	218	55.9	55.9
		고 18-21세	172	44.1	100.0
	지역 학교별	중	제주시	12.8	12.8
			서귀포시		
			남군	23.3	36.1
		북군	49	12.1	48.7
		고	제주시 남자인문	13.3	62.1
			서귀포시 여자인문	13.6	
			실업고	24.4	100.0
교 직 원 학 부 모	성별	남	187	47.8	47.8
		여	204	52.2	100.0
	연령별	20대	43	11.0	11.0
		30대	123	31.5	42.5
		40대	167	42.7	85.2
		50대 이후	58	14.8	100.0
	신분별	교직종사자	349	89.3	89.3
		일반학부모	42	10.7	100.0
	학력별	고졸이하	50	12.8	12.8
		초대졸	39	10.0	22.8
		4년대졸이상	302	77.2	100.0
	자녀별	초등학생	145	37.1	37.1
		중·고등학생	148	35.8	35.8
		대학생	61	15.6	15.6
	거주지별	제주시	288	73.7	73.7
		서귀포시, 남군	87	22.3	96.0
		북군	16	4.1	100.0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분포현황을 보면

첫째, 학생인 경우 설문응답자의 성별에서 남녀 비율은 각각 40.8%와 59.2%이며, 연령에 따른 중·고교별 비율은 각각 55.9%와 44.9%이고, 지역 학교별 분포를 보면 중학생은 제주시 12.8%, 서귀포시·남군은 23.3%, 북군 12.1%이다. 고등학생인 경우 제주시 남자인문고 13.3%, 서귀포시 여자인문고 13.6%, 실업고 24.4%로 설문 전체 학생 응답자 중·고생 390명의 연령, 성별 그리고 지역별, 계열별 분포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여 그 중 중학생의 서귀포·남군 분포비율이 각각 23.3%, 고등학생의 실업고비율이 24.4%로 높은 것은 각각 2개 지역과 2개 학교를 표집비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산·통계된 수치이므로 전체 지역별, 학교별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직원·학부모인 경우는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인 교직종사자와 일반 학부모 비율이 89.3%와 10.7%로 구성되었다. 성별에서 남녀 비율은 각각 47.8%와 52.2%이며 연령분포는 30대 31.5%, 40대 42.7%로 비교적 많게 분포되어 있으나 제주도 종합개발의 근거법률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1년(2000. 1. 28. 개정)까지 임을 감안할 때 이 연령은 10년 후에 40대 내지 50대로서 제주 도사회의 주축이 될 연령이므로 오히려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력은 4년대졸 이상이 전체 77.2% 수준을 넘고 있어 응답자의 수준이 상당히 고학력자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응답자에 교직종사자가 많이 포함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중 전체 응답자 391명 중에는 초등학생 학부모가 37.1%,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35.8%, 대학생 학부모는 15.6%로 교직종사자들로 학부모로서의 입장에서도 교차 응답을 하여 성향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거주자가 73.7%, 서귀포시·남군 22.3%, 북제주군 4.1%로 제주시 거주자가 응답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 2 章 濟州國際自由都市의 意義 및 推進 概要

第 1 節 國際自由都市의 意義

1. 개념정립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용어들의 의미는 상대적인 것으로 자유는 상품, 자본 및 노동의 제한없는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나 모든 도시, 지방 및 국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요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이러한 자유의 정도 및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하여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국제’라는 단어는 간단한 의미로서는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국제화는 어느 정도는 이미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¹³⁾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국제자유도시가 “산업·경제·무역·관광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상품·자본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제한을 철폐하여 이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투자되며 거래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지고 그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Free International City)는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확정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아니며, 실제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지대’, ‘투자자유지역’ 또는 ‘자유지역’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각건대 국제자유도시(지역)의 개념은 자유무역지대, 투자자유지역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외연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¹⁴⁾ 제주 국제

13) 제주도, 앞의 책 pp.8-9.

자유도시 개념도 투자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국제투자 및 무역·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국제관광자유도시의 개념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한편 제주도에서도 지난 40여 년간 몇몇의 연구와 다양한 가정 하에 제주의 개발 및 국제자유도시 개념정립에 대한 시도가 있어 왔다.

2. 자유도시(지역)의 계획수립 변천사

1) 1963년 제주자유지역계획

국무총리산하 각 부서의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된 제주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다음 지역을 자유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① 제주도 전역, ② 제주항 또는 그 외 지역, ③ 제주시 지역 등이다.

그러나 동위원회는 홍콩 등지와 비교해서 경쟁이 미약하며, 항구의 자유화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너무 크고, 당시에 자유항으로 운영되는 항구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었으므로 자유화에 대한 이익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관광부문에서의 자유화만을 제안하였다.

2) 1975년 제주자유항 계획

건설부는 제주도에 자유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 검토한 경제부문은 다음과 같다.

- ① 무역, ② 관광, ③ 원자로(Nuclear Reactor), ④ 저장시설 및 기타시설, ⑤ 수출가공 분야이다. 그러나 건설부는 상세개발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3) 1980년 제주자유항 계획

경제 및 과학심의위원회는 관광 및 오락시설을 포함하는 자유항 개발계획을

14) 이성봉·김종근·이형근, 「외국인투자유치정책 :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pp.18-19.

15) 김부찬, 앞의 논문, p.91.

검토하여 11개 가능 지역을 분석하고, 4개의 대안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남제주군 '대정'을 선정하였다.

동위원회는 중국과 일본간의 전략적 위치로 인해 자유항 개발 기회는 높으며 국가방위에도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재정 부족 때문에 추가적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경제기획원에서는 동위원회의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비용 및 이익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들어 자유항 개발계획을 연기하였다. 즉 1988 서울올림픽을 통한 관광부문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4) 1983년 복합국제자유지역계획

토지개발공사는 벡텔을 포함한 해외 컨설팅업체가 수행한 용역을 관장하였고, 용역을 통하여 제주도를 극동 및 환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가능성을 다음 분야들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① 동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성장, ② 세계적인 기술 발전, ③ 항공수송관련 산업의 성장 예상, ④ 국내인구의 지방분산 예상, ⑤ 관광산업의 성장 예상, ⑥ 민주주의 및 경제자유에 대한 요구 증대 예상, ⑦ 개방토지 활용정책에 대한 필요 등이었다.

자유지역의 기능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① 외국인 관광 문화, ② 쇼핑, ③ 항공수송 및 중계무역, ④ 국제금융, ⑤ 보험 및 기타서비스 산업, ⑥ 국제수준 교육 및 연구활동 등이다.

연구 용역 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므로 단계별로 추진할 것, ② 자유도시는 제주도 전역과 연계될 것, ③ 2개의 중심개발개념과 개발을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결정·집행기관을 설립할 것, ④ 기존의 홍보방식과 대비되는 제주도의 마케팅이 필수적이라는 것 등이다.

경제기획원은 민자유치 가능성 불확실, 국제자유무역지역 개발 가능성 불확실, 대규모 자본투자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적다는 이유로 국제자유지역 개발 계획은 연기되어야 하고,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복합국제자유지

역 계획을 반려하였다.

그후 제주도에서는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제주 순방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을 건의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 2000년 6월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8월 대통령의 제주 방문 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약속,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추진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 2 節 濟州道國際自由都市 推進 概要

1. 추진목표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목표는 제주도의 개발로 한국경제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 및 자유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일련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중국, 일본 및 한반도 사이에 제주도가 가진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고 동시에 국제투자 유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포괄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많은 사업분야가 국가 또는 세계기준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섬 경제가 가진 고유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지원의 부족, 부적합한 공공투자 및 독자적 경제개발에 대한 비효율적인 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다음 사항을 목표로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

① 주민의 질 향상, ② 오염되지 않은 환경의 보존, ③ 동북아 중심도시로 개발, ④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 금융 및 무역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21세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정부 및 제주도는 적절한 기반시설과 일련의 정책수단을 제공하여 제주를 홍콩 또는 싱가포르와는 차별화된 관광 및 금융 중심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2. 추진전망

독자적인 지역 문화와 깨끗한 환경 속에서 현대적인 국가, 지역 및 세계 경제로 활기가 넘치는 섬을 21세기 제주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포괄적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 ① 환경 보호, ② 지역 문화 보존, ③ 경제 발전 등이다.

여기에는 개발 장소를 선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환경적 고려가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경제 개발 과정의 착수에 따른 기회를 최대화 하는 동시에 깨끗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경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① 1차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결합하는 보다 포괄적 기반의 경제
- ② 농업, 생명공학 및 관광의 틈새 부문에 있어 교육, 연구 및 개발의 중심지,
- ③ 보다 폭넓은 하이테크산업에 기반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농업 및 생명공학 상품의 세계적 개발지,
- ④ 전자산업기반 국내외 제조업체들을 위한 청정 생산 기지,
- ⑤ 제주 고유의 상품으로 차별화된 국제적 경쟁력으로 세계 관광시장에서 선호되는 관광지이다.

또한 용역보고서에서 제주도는 그 역할 및 영향력에 있어서 지역의 배후지 또는 국가 경계라는 한계를 벗어나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인 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국제적 도시가 되어 그 동안 국내 위주였던 정부 부문, 민간 부문 및 주민 생활상에서 국제적 사항을 받아들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경쟁력과 섬이라는 불리한 위치를 고려할 때, 짧은 기간 안에 홍콩 또는 싱가포르와 같은 경쟁 상대와 맞서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세계 금융, 무역 및 상거래의 고도의 도시화가 요구되는 국제적 중심지가 되리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예측¹⁶⁾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20년 후라면 제주는 다음과 같은 국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16) 제주도, 앞의 책, pp. 12-13.

것으로 예측하였다.

- ① 한국 내륙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 ② 한국 및 주변 국가의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 명소,
- ③ 국제적 기업들의 대표단 및 시설 유치,
- ④ 국제 회의 또는 모임의 개최지,
- 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고유의 뛰어난 환경, 축제, 문화/스포츠 행사 및 시설,
- ⑥ 다른 국적 및 민족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공동체,
- ⑦ 여러 국가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점, 업무 및 서비스 제공,
- ⑧ 특히 3차 산업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시설 보유,
- ⑨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사업하기에 효율적인 장소로 평가,
- ⑩ 전통과 유산을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국제적 이념, 관습 및 외관을 이해하고 환영하는 제주 주민 등이다.

따라서 이런 전망을 현실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개될 30년은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미래학자들은 과거 50년의 변화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¹⁷⁾

第 3 節 濟州道國際自由都市 教育部門 戰略

1. 교육의 과정부문

1) 현황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3대 핵심 추진과제로 ‘관광’, ‘교육’, ‘1차산업’ 부문을 정해놓고 있다.

교육 부문은 관광, 1차 산업 및 환경과 함께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교육은 전반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요소이며, 개

17) 이달곤, “21C 지방자치의 환경”, 「제주발전연구」, 제3호, 1999, p.11.

별 부문의 특정 계획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로서 제주를 학문과 산업 및 기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전략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그 비중을 매우 높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하이테크 및 지식 기반산업을 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제주는 다른 산업 부문과 관련지어 특히 이 분야에 있어 전문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적인 전략이 될 수 있고, 특히 농업 및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세계 유수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영역에서의 교육 시설을 개발 및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세계 명망 있는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연합 대학을 구성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단기 계획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국내 유망 기업 및 국제 대규모 회사와의 협작법인을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향상된 기술 기반을 활용하기 위해 제주에 유입될 것이고 동시에 연구 및 개발 공동체가 발전되며 신규 기업의 육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은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점점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금융 및 관광과 같은 다른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기반개발이 교육적 요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 내 외국어 학교의 부족 및 영어 능력의 부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외국어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호텔 경영/관광 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한된 교육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국내 다른 지역과 제주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민간 부문 또는 정부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미국 또는 유럽 유수의 교육 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3차 산업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 대학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수의 외국 대학이 해외분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해외 여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없이 높은 수준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영어 활용 능력의 향상은 직접적으로 노동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앞으로 발전이 예견되는 하이테크,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개발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어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은 외국 관광산업의 개발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국내, 중국 및 일본이 주요 관련 시장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교육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향은 아래 도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1> 교육현황과 문제점

현황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과학 교육을 받았거나 업무 및 금융지식을 갖춘 인력 부족 · 평균 이하 교육 수준의 인력 · 우수 학생은 육지로 이전 · 대학 내에서 연구·조사 및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몇몇 대학은 전문화가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능력과 외국어 학교의 부족 · 내륙지역의 학생 유치가 제한됨 · 서울 지역 대학과 비교해 경쟁력 부족 ·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분산된 접근 · 단편적 연구 개발 · 대학 및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지원 부족

자료 : 제주도, 앞의 책, p.115

<표 2-2> 해결 전략과 제안방향

해결 전략	제안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한 교육인력을 유치하여 제주의 교육수준을 고양 · 제주대학교의 명성을 제고 · 국제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연구범위 확대 ·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개발 시설 설립 권장 · 유수한 외국대학과 자매결연 체결(외국 대학 분교 설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지원 강화 · 세계수준의 언어학교 설립 · 유수한 외국대학교와 연계하여 관광 관련 학교 설립 · 인터넷 학교 설립 ·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면서, 유수한 외국 학교와 연계하여 스포츠 및 의료 학교 설립 ·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생명공학 및 청정 에너지 연구 제고

자료 : 제주도, 앞의 책, p.116.

이상과 같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분야 교육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면 그 동안 교육계 일각에서 제시하는 제주교육과 제주개발 그리고 제주 사회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분야의 의견과 시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경종 교수는 첫째로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그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제주교육의 본연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¹⁸⁾ 제주개발이나 제주교육이 개념상 제주인들의 잘 사는 삶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 할 수 없으며, 제주다움은 제주개발과 제주교육의 본연이 맞물리는 곳이라고 하였다. 둘째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교류나 국가와 국가간 교류에 있어서도 선결 되어야 할 교류의 주체로서 개체성 확보를 들고 있으며 개체성 확보가 없는 교류는 예속화라고 하였고, 국제화에 대비하여 '제주'가 확보해야 할 개체성은 문화적 개체성이며 이 문화적 개체성의 확보는 기초교육과 관련한 제주교육 본연의 국제화 개념과 맞물리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즉, 제주인으로서 잘 사는 삶은 제주 전통문화의 가치를 갖고 그 특색을 살리 어 그것을 향유하는 삶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제주교육의 본연에 입각해서 국제화에 대응해야 할 일이 국제화의 조건인 제주문화의 개체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제주인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제주교육의 모체라는 의미이다.

김동성 교수도 제주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제주인의 재인식과 재정립과정이 시급함을 역설하며 개방화, 국제화의 전제가 되는 정체성 확보를 주문하고 그 것을 제주교육의 본연이라고 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국제자유도시 추진 교육부문의 전략에는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이나 '문화적 개체성'을 위한 초·중등기초교육 과정에 도구화된 전략적 교육정책 보다는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잘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부문에 주문하고 있다.

18) 오경종, "국제화시대의 제주 기초교육", 「국제화 시대의 제주교육」(한울, 1995), p. 25.

19) 김동성, "국제화 시대의 정치·사회교육", 위의 책, p. 99.

따라서 이러한 교육부문의 주문을 해소하는 실천전략으로서 배타성 극복, 자주성 및 선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문화정체성 교육 등 의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교육적 대응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궁극적 목표인 '제주인의 잘사는 삶'을 지향하기 위하여 교육의 과정 부문에서도 제주학생들이 장래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하고 아울러 <표 2-1>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표 2-1>에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적인 과제를 도출하기에 앞서 문제점 중 제주도민을 '평균이하의 교육수준 인력'으로 분석·제시한 것은 다소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초·중등 교육기관의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좀더 현실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보겠다.

'평균이하 교육수준' 인력분석에 대하여 기초교육을 주관하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학생수 변화 추이〉

2000년 현재 제주지역 유치원 원아수는 전국 인구 대비 비율(1999. 12. 31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1.13%임)에 근접하나, 1980년 당시만 해도 유치원 원아수가 전국 대비 1.75%였음을 고려할 때, 1980년 이후 정부의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드러낸다. 제주 지역 초등학생 수의 증감은 출생 아동의 증감에 따라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중·고등학생 수 역시 전국의 증가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해 왔으나 1990년 이후 증가 추세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함을 고려할 때 <표 2-3> 이는 중·고등학생 절대 인구의 상대적 감소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대학생의 증가는 전국 수준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비교 기준 시점인 1970년 현재 제주지역 대학생 수가 전국 인구 대비로 볼 때 0.4%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에, 이후 대학생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셈이다. 또 다음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 이후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그만큼 제주지역 주민들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말 현재 제주도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13% 정도임을 감안할 때, 2000년 현재 제주지역 대학생 수가 전국 대학생 수의 1%에도 못미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제주지역 주민들의 대학 접근 기회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대학의 수용능력이 타 지역에 비해 뒤쳐 제주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상당수가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뜻한다.

〈진학률 변화 추이〉

다음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 이후 제주지역 초등학교 졸업자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추세라 하겠다. 한편 제주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이후 대폭 신장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제주지역과 전국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일반계 고교의 경우 제주지역 진학률은 1970년까지만 해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1980년 이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2000년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10명중 9명꼴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6% 정도 앞선 수치이다. 실업계 고교의 진학률은 73.2%로 전국 평균 41.9%를 크게 앞선다. 제주지역의 실업계 고교는 이제 더 이상 종결교육기관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제주지역 실업계 고교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 51.4%보다 크게 뒤진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제주지역 주민들의 대학 진학 욕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양진건 교수는 학제상 대부분의 학생들(majority)이 일반교육을 받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오히려 그것이 교육제도로 설계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²⁰⁾ 사실 실업계에 진학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직업기술을 배워 졸업 후 취업할 뜻을 가지고 입학했다 해도 실업고생 도내 취업현황인 <표 2-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3차 산업 계통인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도내 고용인력시

20) 양진건, “교육인력의 양성”, 「제주도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대안 구축」(세미나 자료), pp.35-39.

장의 고용기반이 취약하거나 3D업종 기피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계 고교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제주지역의 경우 더 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1차산업과 관광업이 주를 이루는 제주지역 산업구조상 실업계 고교생들이 졸업을 해봐도 취업할 마땅한 곳이 없기에 고교 입학 당시부터 진학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표 2-5>. 또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에 1개의 전문대학(제주관광대학)과 1개의 사립대학(탐라대학교)이 추가 설립돼 제주지역 대학생 정원이 크게 신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¹⁾

<표 2-3> 전국 제주 대비 각급학교 진학률 변화 추이

연도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		일반계 고교 졸업자		실업계 고교 졸업자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1970	66.0	73.8	70.1	71.0	40.2	26.5	9.6	5.1
1980	95.7	97.0	84.5	89.5	39.2	56.3	11.4	18.2
1990	99.7	99.8	95.6	96.9	47.2	52.4	8.3	8.4
2000	99.9	100.0	99.5	99.7	83.9	90.4	41.9	73.2

자료 : 제주도교육청,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 2000, p.10.

<표 2-4> 전국 제주 대비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학생수 비율

연도	전 국		제 주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1985	1,266,840(58.8)	885,962(41.2)	15,700(52.0)	14,479(48.0)
1990	1,473,155(64.5)	810,651(35.5)	18,840(59.7)	12,706(40.3)
1995	1,246,427(57.8)	911,453(42.2)	15,878(60.2)	10,478(39.8)
2000	1,324,482(63.9)	746,986(36.1)	14,534(60.9)	9,331(39.1)

자료 : 위의 책, p.11. -()는 %

21) 제주도교육청, 앞의 책, p.10.

<표 2-5> 실업계 고교졸업자의 취업률

연도	졸업자수	전학회방자		전학자		취업자수		취업현황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농·수·축	제조·건설	서비스	비율	
1998	3,711	81.2%	3,014	69.3%	2,575	23.4%	871	10.9%	95	18.3%	160	70.7%
1999	3,495	72.9%	2,550	65.1%	2,278	21.9%	767	11.0%	85	9.5%	73	79.4%
2000	3,487	86.2%	3,006	73.2%	2,555	21.0%	732	6.1%	45	16.6%	122	77.1%
												565

자료 : 제주도교육청, 통계연보

- 서비스업 : 음식업, 숙박, 운수, 통신, 금융, 사회개인서비스업 및 기타를 통칭한 것임.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주도지역을 평균이하의 교육 수준 분포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서울 등 대도시의 고학력 집중 분포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제자유도시와의 비교결과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없지만 전국 수준과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통계수치 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만큼 전국 또는 외국의 명문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우수인력 분포는 적을지 모르나 도민들의 보편적 교육수준은 실업계고교 졸업자를 포함하여 평균이하의 교육수준은 아닐 것이다. 도민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에 대한 평가수치라면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일정²²⁾을 감안할 때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인 향후 몇 년 사이에 제주도내 고등교육 이수자 분포는 20-30대 층이 대부분이 될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순수 제주도민의 고등교육 이수 수준의 상향적 분포는 국제자유도시 역기능 저감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클 것이며 앞으로 인력정책 기구에서도 상당 부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주민의 이러한 고등교육 이수 수준은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10-20년 이후 국제자유도시 환경

22) '정부여당인 민주당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이 공식 출범', 제민일보 (2001. 2. 22).

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기초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함은 이미 전제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21C에 요구되는 고차원적 기본능력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심어줘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기초능력을 제공하고 그들이 지식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세계화와 외국어교육을 담당해야 한다.²³⁾ 이러한 교육의 과정부문 변화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추진기구와 교육기관 사이에서 연계 추진되어야 정체성교육, 평화교육 및 진로의식교육 등 도민의식 교육과 교육과정 내용이 일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1C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관광 및 첨단 산업에 종사할 제주도내·외의 우수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노력과 통일된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의 과정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가 있다.

2) 시사점

첫째 초·중등 기초교육과 연계·추진하는 과제, 둘째 영어능력과 외국어 학교의 부족을 감안하여 외국어 교육을 초·중등기초 교육분야와 연계·추진하는 과제, 셋째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보화·세계화 교육도 기초교육으로 강조²⁴⁾하는 과제, 넷째 과학 및 기술분야에 종사할 초·중등 기초교육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방안 등이다.

23) 이화수, 「정보화 시대 교육의 정책」 (태화출판사, 1997), p.55.

24) 제주도교육청의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 (1995, p.326)에서는 제주교육의 세계화는 제주도민의 총체적 단합과 공동노력을 요한다하고, 제주도민들의 고립적, 폐쇄적,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탈피한 보편적 세계화보다는 교육제도의 세계화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교육의 의식부문

1) 현황

60~70년대의 제주도는 자연경관 하나만으로도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았으나 최근 경쟁력 감소와 IMF체제로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97년에 436만명에 이르던 관광객이 '99년에는 329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으며 관광수입도 1조 750억원에서 9,55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와 같은 원인은 IMF 등 대외적인 원인도 있으나 궁극적 원인은 차별화 전략의 부족과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휴양관광으로 변모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제주도의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점차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상실해 가고 있다.

'98년 제주도의 전체관광객 329만명중 외국인 관광객은 22만명, 6.7%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객 425만명의 5%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제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감귤산업의 위기, 고급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의 부족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부득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함으로써 제주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²⁵⁾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관광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국제자유도시 핵심 전략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용역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략적 목표를 계획에 포함해 놓고 있는데 이는 초·중등 기초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분야라고 사료된다.

- ① '평화의 섬 구축'에 따른 평화교육,
 - ② 외국어 능력 개선,
 - ③ 국제대학과의 관광교육 연계 강화
- 등이다.

위와 같은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광 당국과 교육기관이 연결고리를 찾는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은 21세기 서비스 경제를

25) www.jeju.go.kr/free-city/go12-3.htm

주도할 핵심사업의 하나로 정보통신사업, 환경산업과 함께 미래 3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보화시대의 등장으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정보기반 산업이다. 그러므로 관광산업을 정보산업과 연계시키는 한편 질 높은 환경산업을 유통시킬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으로 향후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재인식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

제주도인 경우 도내에서의 관광산업에의 의존도는 높으나 관광조직, 교육,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과 연구의 투자는 현재 제주관광의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²⁶⁾으로서 교육개혁 및 투자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분야별 전략 내용 중에 교육분야는 외국어능력개선과 관광국제대학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초·중등 기초교육 과정내 진로 직업교육과 연계한 관광정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력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개발 사업기능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한 유인성을 제고시키며 전문대학을 특성화시켜 고도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정책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참여유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²⁷⁾

교육자치제 이후 제주도에서 관광·직업교육에 대한 교육분야 추진 실태는 <표 2-6>과 같다.

<표 2-6> 교육개혁 과제와 같이 제주도 교육자치제 이후 관광과 관련하여 관광특성화고교를 확대²⁸⁾하고 있으며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기회를 확대·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도의 마케팅 효율성을 위하여 ‘평화의 섬’ 등 제주도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의식 개혁을 위한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그리고 도민화합을 이끌어 내어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절실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26) 김상태, “제주도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방안”, 「제주발전연구」, 제3호, p.147.

27) 교육부,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 방안」(선명인쇄사, 2000), p.93.

28) 제주농고는 관광산업고(2000. 3. 1), 성산수고는 해양관광고(2000. 3. 1)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특성화 범위를 확대함.

<표 2-6> 제2차 교육개혁 추진 과제

지향목표별	과제명	주관부서 (제주도교육청)	시행 목표 연도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11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 · 실업계 고교 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 · 실업계 고교 시설·설비의 현대화 및 재정 지원 강화 ·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강화 · 산업대학 직업교육의 내실화 · 기술대학의 역할 강화 · 생애에 걸친 진로지도 및 진로 정보 제공 ·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성인 직업교육 확대 및 교육훈련 산업의 육성 · 국·공립 직업교육기관의 법인화 추진 	과학기술과 중등장학과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과학기술과 행정과	'97 '97 '97 '96 '98 '98 '98 '96 '96 '97 '98

자료 : 제주도교육청, 「통계로 본 제주교육 100년」, 1999. p.178.

오늘날 국가들 중 단일민족국가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종족, 다민족사회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이들에 대한 상호관용과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국제평화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종족 사회에서의 평화교육은 꼭 필요하다.²⁹⁾ 상호관용에 대한 교육은 하나의 기본원칙 위에 이루어진다. 즉, 우리 인간은 성별, 민족, 종족, 외모, 그리고 기타 속성에서 각기 다르게 태어났으며 이러한 상이성을 이유로 서로 차별하거나 박대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뜻한다.

이러한 관용에 대한 교육은 꼭 국제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문화, 다종

29) 예를 들어 통일전 서독인구의 8.2%가 외국인으로 거주했었지만 1990년 통독이후에는 6.8%로 감소하는 추세로서 이들은 주로 문화적 이질성이 높은 터키인들이다. (주10)

족국가의 경우, 국내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회는 대내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 사회적 규범의 확산을 통한 사회적 협동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³⁰⁾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민족국가의 경우에도 경제적 불평등이나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내부적 갈등과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적지 않게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평화·발전 전략으로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개념을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제주 발전 전략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장기적으로 제주인의 삶과 제주 발전의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인은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왔다. 평화가 의미하는 대립과 갈등이 없고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는 달리 표현하면 주체간의 조화로움이 실현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제주 평화의 섬’은 제주로 하여금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중앙 그리고 세계의 조화를 통한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도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복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는 복지공동체로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주가 추구하는 발전 이념과 상통하는 것이다.

둘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 이미지에 입각한 국제교류·협력의 거점화를 통해 제주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주는 국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지역 평화 및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이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³¹⁾

30) 제주도교육청, 앞의 책 (주24), p.84.

31) 지금까지의 ‘평화의 섬’ 추진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1. 4. 제주에서 한·소 정상회담 개최 → 냉전 해빙의 시작 →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구축 역할 부상. 남북한 UN 동시 가입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 ‘평화의 섬’의 기초가 되는 평화의 개념은 이념적·내부적 측면에서는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이 없는 조화로움이 실현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고, 전략적·대외적 측면에서는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지역간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적 존립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남북화해 및 국제 교류·협력 시대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제주인 스스로 문화적 다양성과 평화적 교류·협력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세계시민은 하나의 가치나 문화 척도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가치관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원주의와 관용·평화의 정신이 내면화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교육기관과 민간·사회단체에 의한 평화교육 및 북한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지원·장려하고, 이를 기초로 평화운동과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평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갈등의 비폭력적 해소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가치인 평화를 지키고(peace keeping), 만들어내며(peace making), 더욱 증진시키는(peace improving),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³²⁾ 이러한 평화교육은 나아가서 북한을 바로 이

-
- 1991. 5.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하와이대 마초나가 평화연구소 주최 평화세미나에서 ‘평화의 섬’ 논의 시작
 - 1991.10. 제주국제협의회가 ‘평화의 섬’ 구상 제시
 - 1996. 4. 제주에서 개최된 미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 회담’ 제의
 - 1997. 9 김대중 대통령 후보 제주 ‘평화의 섬’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
 - 1997.12.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모색 워크숍」 개최
 - 1999.12.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조항 신설
 - 2000. 1.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형 ‘평화의 섬’ 모델 설정과 실천전략에 관한 포럼」 개최
- 출처 : 고성준, “남북화해·협력시대와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 「제주발전연구」, 제4호, p.13.
- 32)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한울아카데미, 2000), p.61.

해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물론 사회 교육 현장에서 '제주 평화의 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함으로써 학생들과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하며, 마음속에 내적 평화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관용, 동정심, 공유, 배려의 자질을 확고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국제 차원의 평등의식과 연대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인이 남북 화해와 국제 평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³³⁾

그러나 그동안 '평화의 섬' 만들기에 '4·3'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의 섬 만들기에 장기적 목표를 설정³⁴⁾해 왔으나 도민들은 제주가 확립해 나가야 할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각양각색의 안만 있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천계획이 없다³⁵⁾라고 하는 논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있다.

2) 시사점

여기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교육의 의식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시사적인 과제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의 의식 부문 주요정책 과제로서 제주인으로서 잘 사는 삶을 위한 정체성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 연계 추진하는 과제, 둘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초·중등교육과정내 직업진로 교육과 연계하여,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과제, 셋째 '평화의 섬' 인식구축을 위한 평화교육에 대한 필요성 진단과 개념의 정립 및 방법 등이다.

33) 김부찬, "남북교류·협력과 제주 '평화의 섬'", 「제주발전연구」, 제4호, 2000, p.56.

34) 고성준, 위의 논문(주31), p.17.

35) 2000년 12월 14일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에서 주최한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평화의 섬' 구상」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집단적 사고를 통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3. 교육의 법 · 제도부문

1) 현황

국제자유도시 용역 결과 법 · 제도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점들을 가능한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법적, 행정적 구조는 국제적 경쟁력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제한 기존의 법적, 제도적 틀에 대한 검토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제도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존의 법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들을 제시하였다.

관련 외국 법률의 분석과 관련된 국제적 비교연구의 주요결과는 국제적 비교가 서로 다른 정치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환경에의 적합성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없이 쉽게 어느 곳에서나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로 적용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적용법 체계는 한국의 헌법, 그리고 법률 및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독특하게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제주도개발특별법은 1991년이래 제주도의 개발 및 계획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받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대통령으로부터 최종승인 등에 대해서 도지사로서의 기본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다른 법률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개발은 다른 어떤 개발 계획 및 법률에 우선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용역 보고서에 의한 제주국제투자개발청(JIDA)이 갖는 권한의 범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비롯한 현행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초과한다. 그러나 공공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으며,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법적분류기준으로 <표 2-7>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하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공공기능들을 보여준다.

<표 2-7> 표준산업분류번호 및 공공기능

표준산업분류번호	공공기능으로 간주되는 업무
76111	입법기관
76112	중앙행정기관
76113	지방행정기관
76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76119	기타 일반 공공행정
76120	정부보조서비스 활동
76211	교육 행정
76212	문화 및 관광행정
76213	환경 행정
76214	보건 및 복지행정
76219	기타 규제행정
76221	노동행정
76222	농림 수산업 행정
76223	건설 및 운송행정
76224	통신행정
76229	기타산업진흥 행정
76310	외무행정
76320	국방행정
76500	사회보장행정

자료 : 제주도, 앞의 책, p.249.

따라서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의 권한이 특별한 입법절차를 걸쳐 부여되는 한편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용역보고서에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법률로 분류된 것 중 교육제도 분야에서는 초·중등과정에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실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관련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제주도의 공식적인 제2언어로 영어를 지정하는 것은 기존법률상의 장애요인이

없으나 초·중등기초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 내 흡수 및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와의 의견 수렴과정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10년까지 제주도교육기본계획에 외국어교육강화의 프로젝트별 세부추진계획에 제주도의 영어 제2공용어 추진계획을 포함시켜 이미 교육수요자의 이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는 법·제도부문의 교육분야에 새로운 입법 또는 법개정이나 규제적 요소들의 철폐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유무역지역, 국제적 관광지역의 특성을 교육에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홍주는 제주교육 특성에 따른 '교육규제자유지역'의 설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³⁶⁾

- ① 교육부문의 국제경쟁력 확보,
- ② 효율성을 지향하는 교육규제개혁의 강화,
- ③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교육발전 지향,
- ④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탈피,
- ⑤ 학생, 학부모와 직접 관련된 각종 교육 규제의 품질 제고 등이다.

또한 정부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정책기획단에서는 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의 하나로 지식기반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을 교육규제 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초기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면서 교육부분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³⁷⁾

2) 시사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 및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시설확충 등 교육행정권한을 확대하고 교육자치제도 및 주민참여기구

36) 김홍주, "규제자유지역의 교육부문 모형", 「규제자유지역의 제주도 적용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00), p.53.

37) '교육규제자유지역 추진', 제주일보(2001. 4. 1).

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적인 과제를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학교설립의 자유화, 단위학교 자율경영제 확대로 관광특성화, 외국어 교육시수 자율 운영,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교육부문에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설정되도록 국제자유도시 추진 법·제도적 부문 개선전략으로 특례법에 포함시키는 과제, 둘째 제주국제투자개발청,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 등 주요기구에 초·중등기초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초교육부문 추진사항 등을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제 등이다.

이상 교육의 3개부문에서 도출된 시사적인 과제들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수준의 교육제도를 뛰어넘는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개혁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그 배경을 살펴보겠다.

第3章 地域社會 教育改革의 理論的 背景

第1節 教育의 價値

1. 교육의 수단적 가치

교육의 가치는 크게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대별된다. 본질적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교육이 인간변화의 가능성과 관련될 때 사용되면서 1차적 가치라고도 지칭되며, 수단적이라는 의미는 교육의 부가적인 기능과 관련될 때 사용되면서 2차적 가치라고도 불린다.

교육의 역사를 볼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신생독립국가들이 부국강병의 논리로 교육의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게 되면서 교육의 수단적 목적이나 가치는 특히 20세기 이후 발전교육학의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이런 교육의 수단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가능성을 개화시키기 위한 의도적 경영”이거나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통제적 작용”이라고 교육에 대한 정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재생산과 새 세대의 재능을 계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의 개발이야말로 교육의 수단적 가치의 공인 셈이다.

사실 교육의 수단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인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사회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교육을 사회의 질서와 가치체계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온 한편, 부단히 사회를 발전시키거나 갱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개화시켜 왔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은 사회발전과 그 갱신을 위한 기동력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지속과 통제의 장치로서 기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³⁸⁾ 따라서 이러한 사회통제의 제도적 장치로서

38) 안기성, 「교육학개론」(학지사, 1993), p.251.

헌법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2. 헌법과 교육

헌법은 그 고유의 의미로 ‘국가의 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법의 전체’라는 점에서 모든 법의 기본으로서 소중한 것일 뿐 아니라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말하듯 “모든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는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권을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를 위해서도 귀중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헌법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영역이 이에 대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헌법에 의해 처음으로 우리교육이 인간을 존중하는 일을 기본으로 삼게 된 일로, 이로부터 이른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교육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점은 ‘생활권’ 조항이다. 교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보통교육 단계에서는 생활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모두가 익혀 인간다운 생계와 지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³⁹⁾ 이른바 직업교육의 프로그램이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교양교육에만 주력함으로써 생계유지를 위한 지식과 기술 하나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채 사회로 배출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사회의 낙오자로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이 아니다.⁴⁰⁾

39) Hoyt, Kenneth B. *An Introduction to Career Education : A Policy Paper of the U.S. Office of Education*,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74, p.15.

40) 안기성, 앞의 책, pp.257-259.

第 2 節 地域社會와 教育

1. 지역사회와 교육변화의 의의

오늘날 교육현장은 공적 지식론과 이를 후원하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소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장(場)에 보편화되어 있다. 정·오(正·誤)의 이원적 학문관에 근거하고 있는 학문지식은 객관주의라는 장식에 의해 포장되어 있고, 공적 지식은 정답이라는 절대기준으로 학교교육의 모든 요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학교를 지배하는 한 주입식 교육형태의 위교(爲教:indoctrination)나 사회적 선발과 같은 정치·사회적 기능 이외에, 교육이라는 자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교육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학교를 교육의 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이고 구조주의적인 논의를 교육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의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토마스 쿤(T. Kuhn)은 『과학혁명의 구조(1962)』에서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를 말하고 있다.⁴¹⁾ 그에 따르면, 일단의 정상과학이 형성되면 기존의 사고의 틀을 입증하거나 확장하려는 노력이 연속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나 정상과학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누적되면, 갈등과 불안이 커지게 되고, 결국 과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 나서게 된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설명체계 속에서 새로운 사고의 틀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기존의 틀이 현상과 자주 충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이 위기와 갈등에 직면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교육에서 갈등이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에 중요한

41) Kuhn, T.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2, pp. 1-14.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⁴²⁾

이처럼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는 작업이고 변화되는 것이 개인내적인 구조라면, 이것 역시 장기적인 체험의 부하과정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은 모순과 차이로 인한 갈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이 곧 교육이므로 갈등은 교육의 내부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³⁾

이러한 갈등이 해소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교육이라고 할 때 제주도 지방교육의 사회화 과정은 장기간 체험적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외적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교육, 특히 체계적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학교는 자유교육의 프로그램에서도 실용적-생산적 인 간활동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삶의 과정을 세련되게 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직업교육의 프로그램에서도 생산적 활동에서 요구되는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일의 의미와 가치를 교양적 차원에서 음미할 수 있도록 그 격을 높여야 할 것이나, 이론적 경지와 실질적 활동을 하나의 삶 속에 융합하는 경험의 통합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육은 그 균형을 잃게 될 뿐이다.⁴⁴⁾

2. 지역사회와 교육의 역할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공교육제도가 확립되고 학교교육이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부터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런가하면 20세기 이후에는 일정한 단위의 지역에서 학교나 다른 교육관련 기관에서 그 지역사회 내의 각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거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이 매우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학교를 사회와 유리된 상아탑으로 취급하던 전통적 교육관에서

42) 송기주, “교육에 있어서 갈등과 그 교육적 해소”, 「교육원리연구」, 제4권, 1999, pp. 112-113.

43) 위의 책, p. 113.

44) 이돈희, “21세기 교육과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반성과 과제」(새교육공동체위원회, 2000), p. 8.

벗어나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며 학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 이면서 사회발전에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현대적 교육관으로의 전환 을 증거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의 지역사회 교육활동이 중시되면서 지역성은 확대되어가는 반면 공동성을 회복해 가고 있다. 특히 동일지역사회의 주민 구성원이 점차 이질화되어 갈에 따라 지역사회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사회성원의 관습, 태도, 가치관 등을 형성 시키려하는 노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형태나 문화가 학교교육에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생각할 때 주어진 지역사회에 적응한다는 소극적 입장에서보다 도리어 우리들의 생활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적극적 입장이 중요하다. 교육은 여기에서 구체적인 지역사회의 욕구에 순응할 수 있는 행위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가사회 또는 국제사회의 이상을 주어진 지역사회에서 실현시켜 가려는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⁴⁵⁾

따라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인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제도 도입은 국가시책을 교육으로 주입하려는 의도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욕구에 순응해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3. 지역사회와 교육개혁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2000. 6)에서는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지식기반 산업과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세계화 지식기반사회 및 기술기반계획이 교육적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고 개별부문 특정계획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시대적 요구는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교

45) 위의 책, pp.13-17.

육개혁 내용과 현실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회적 동기와 연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⁶⁾

첫째, 한 사회가 전면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 위기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그 사회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둘째, 현실적으로 제도적 체제와 실천적 활동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교육이 여러 가지 역기능적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셋째, 우리의 삶이 영위되는 사회적, 문화적, 혹은 자연적 환경에 변화가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과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동기는 위의 세 번째 경우로서, 국가수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르는 지역수준의 교육체제 변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대 환경적 측면에서도 고도의 산업사회, 과학기술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학생들의 사고력, 창조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과의 활동의 강화를 요청해 왔다. 그 동안 교육과정의 개혁운동에서 보면 기본교육의 충실, 학습방법의 다변화, 학습의 개별화, 직업교육 및 생애교육 등이 주요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러므로 이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⁴⁷⁾

정진곤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 21C 학교교육의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⁴⁸⁾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이제까지의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이다. 공장에서의 제품의 생산력보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와 개인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게 된다. 21C에 살아갈 아동들은 이러한 사회에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46) 교육개혁평가연구회, 「21세기의 새지평 교육개혁」(선명인쇄사, 1997), pp.9-20.

47) Dillon, B. & Wright. "Educational predictions : past, present and future" in Lane Jennings & Sally Cormish. (eds). *Education and Future-Selected Articles on Education from the Futurist*. World Future Society. Washington. D. C. 1980, pp.102-110.

48) 정진곤, "학교교육과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반성과 과제」(새교육공동체위원회, 2000), p. 372.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국가적으로도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 교사, 교육행정가 그리고 학부형들에게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방식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어야만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도 이제까지 전통적인 기초 학습능력 즉 읽고, 쓰고, 셈하는 기본적인 능력과 인문사회적 기초교육과정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다. 세계 각국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획득이 중요시됨에 따라 컴퓨터 교육과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지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한 전통예술, 전통기술, 국학분야의 지식기반은 기초학습 능력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의 여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교실붕괴’ 혹은 ‘학교붕괴’ 등의 현상도 변화된 시대적 흐름과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방법 등을 도외시하고, 전통적인 교육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는 방법 그리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만 한다.

셋째,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방안 등의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급당 인원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학교의 시설과 설비도 개선해야만 한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과 보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넷째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와 교육이론가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체제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대학교수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안 과제들은 국제자유도시 환경에 대비한 지방 교육개혁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의 21C 시대적 교육환경의 패러다임 혁신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지역사회와 교육부문 전략

그동안 우리교육은 양적으로 보면 세계 정상권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화에 기대했던 양적성장 중심의 교육으로는 정보화·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고도의 창의력과 높은 품격을 지닌 인간을 양성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⁴⁹⁾

따라서 이러한 교육의 양적 성장은 동시에 교육의 질적 저하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국제경쟁력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임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秀越性) 추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식정보화, 세계화, 첨단화가 촉진되면서 적응력 있는 인재양성을 통해 부국강화를 꾀하는 세계 선진 각국은 앞다투어 새로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가오는 제주의 미래사회가 과학기술사회이며 이른바 지식정보화사회가 될 것임은 이미 언급되었듯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의 미래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국제화시대의 조류와 정책과제를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부문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교육기관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교육정책에서는 건전한 경쟁 풍토가 조성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체제 내에 존재하는 획일적인 교육제도 및 평준화 정책 등과 같은 과도한 보호막을 제거하고, 각종 교육규제를 완화하여 교육기관 운영을 자율화하도록 해야 한다.⁵⁰⁾

그러면 이러한 교육규제 완화 정책은 본 연구 앞부분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제주도를 '교육규제자유지역'(a free Zone of Education)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교육규제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9) 위의 책, p.373.

50) 조선제, 「한국교육행정의 현상과 전망」 (협신사, 1999), pp.25-26.

第 3 節 教育規制 改革

1. 배경

1980년대 초반부터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제기되었다. WTO의 출범 등으로 국제화와 지구촌화가 가속화되자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는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더 이상 규제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OECD는 저성장·고실업 등에 기인한 경제활력의 상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하고, 나라마다 상이하기는 하나 그 장기적인 효과로서 GDP를 1%에서 6%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규제개혁은 지난 1992년 설치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가 사안별로 추진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회복에 시급한 핵심 규제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 것을 시작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함으로써 규제법정주의를 정착시켰고,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적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⁵¹⁾

2. 추진방향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 자율

51) 팽현수,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규제개혁백서」(삼립인쇄주, 1999), pp.23-24.

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

둘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한다.

셋째,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한다.

넷째,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는 균원적이고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1) 주요 추진전략

첫째, 모든 기존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매년 중점 추진 규제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둘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실시하여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일몰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셋째, ‘사전적이고 통제적인 규제방식’에서 ‘사후적이고 관리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원칙규제방식’(positive system)에서 ‘예외규제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한다. 넷째, 국민편의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객관화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규제준수 비용을 절감하며 불합리한 규제 신고 등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고, 규제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한다.⁵²⁾ 다섯째, 제도의 국제화를 실현한다. 국제화와 세계경제 통합 추세에 부응하여 규제제도의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범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선진적 규제기법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52) 위의 책. p.29.

3. 교육규제의 문제

1) 교육규제 현황

첫째, 규제 법령의 포괄성 ; 현행 교육관계 법령에서는 많은 조항들이 교육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둘째, 규제 법령의 과도한 세분화 ; 교육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학교설립에서부터 정원 책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기준 및 인사, 시설 설비 기준, 학칙 승인 등 학교가 행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규제자 위주의 교육규제 ; 우리나라 교육규제는 규제자 위주로 되어 있다. 즉 교육규제의 기본관점이 규제자(정부)와 교육공급자(학교)의 편의와 이익 위주로 이루어져서 피 규제자(학교와 학생)와 교육수요자(학생과 학부모)의 이익과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넷째, 행정담당자의 유권해석에 의한 지시 통제 ; 행정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세부 지침을 작성하면서 도리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근거 없이 임의로 발해지는 명령사항도 많다. 이처럼 발해지는 명령사항 중에는 법령보다도 중요한 사항을 행정담당자가 임의로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의 정신과 배치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⁵³⁾

2) 파생된 문제점

첫째, 교육기관의 자율성 제약 ; 교육부에서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상당히 많은 행정권한을 시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등에 이양 또는 위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행정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위시한 교육행정기관에 편재되어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예로서, 교육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학생선발에서는 입시에 따른 교육적 문제 때문에 입시제도에 정부가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고 있다.

53)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교육규제완화백서」, 1996, pp.695-698.

둘째, 창의적인 학교운영 곤란 ; 교육기관의 자율성 제약은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곤란하게 한다. 교육과정, 학생선발, 정원책정, 교직원 인사, 재정운영에서의 과도한 규제는 교육기관이 지역과 학교실정을 감안한 나름대로의 창의적 학교운영을 곤란하게 한다. 특히, 공학에 준하는 사학에 관한 규제는 사학 나름의 전학 이념을 구현하고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 즉 교육규제는 교육기관의 창의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교육기관의 특성과 다양성 추구를 제약하게 되고 있다.

셋째, 자율경쟁체제의 마비 ; 교육규제는 학교간, 기존 학교와 신규설립을 희망하는 학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한다. 특히, 학교 설립인가 등과 같은 진입규제는 직접적으로 경쟁을 제약하며, 가격규제와 학교 및 학사운영에 대한 제반의 규제 역시 직간접적으로 학교간의 경쟁을 제약한다.

넷째, 교육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정책의 시행과 의회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계와 자료를 하부기관에 너무 많이 요청하고 있어서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부담을 교육규제로 생각하고 있다.⁵⁴⁾

다섯째, 단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성급한 적용강화 ; Australia의 경우, 민주적 단위학교운영은 광범위한 공동체와 직원의 관여와 함께 참여적인 결정을 고무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협동도 어려웠고, 교사들은 불만족을 토로하고, 교장은 권력의 박탈감을 느낀다는 부정적인 면이 보고되었다.⁵⁵⁾

또한 협동에 대한 응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느낌으로 토론하는 교장도 있었다. 협동과정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협동적인 결정에 정직하게 참여할 마음이 없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권력정치를 할 준비나 되어 있었지, 진정으로 협동할 마음보다는 타협하는 수가 많았다. Odden 등의 보고에서도 단위학교운영을 실행하는 학교들 중 어떤 교사들은 수년간 계속 관여하는 일은 피곤했

54) 위의 책, p.697.

55) Chapman, J. and Boyd, W. L., "Decentralization, Devolution and the School Principal: Australian Lessons of Statewide Educational Reform",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2/4(Fall 1986), p. 39.

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⁵⁶⁾

4. 향후 교육규제완화 정책

첫째, 21C의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비전 제시를 위한 규제완화이다.

21C는 사회 전반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사회 변화를 ‘제3의 물결’, ‘탈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의 도래 등으로 예견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세기적 변화가 아니고, 인류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미래사회 변화의 경향을 축약해 보면, 탈산업사회화, 정보화, 세계화, 탈근대주의를 포함한 다원주의적 경향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규제완화이다.

이런 미래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교육개혁위원회 또는 현행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개혁안을 수립한 바 있다. 교육개혁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획일적인 규제와 경직된 틀을 탈피하지 않고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며, 교육체제의 개방 및 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들이 중앙부서의 정책들에 대해 신축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때에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변화가 가능해진다.⁵⁷⁾

셋째 규제자유지역으로서 새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이다. 규제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제자유도시 환경에서 교육자율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체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자율과 책임의식이 바탕이

56) Odden, E. R. and Wohlstetter, P., “Marking School-Based Management Work”, *Educational Leadership*, 52-5(Feb. 1995), p. 36.

57) C. Dimmock, “School-Based Management and Linkage with the Curriculum”, *School-Based Management and School Effectiveness*, C. Dimmock(ed), London: Routledge, 1993, p. 5.

된 교육기관의 자율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제주도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새 교육체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교육규제 자유지역으로의 지원행정을 강화하여 국제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체제 자율혁신 능력을 보유해야한다.⁵⁸⁾

58) 김홍수, 앞의 논문, p.46.

第 4 章 初·中等 教育 實態分析 및 問題點

第 1 節 教育의 科程部門 實態 및 問題點

1. 교육의 과정부문 실태

앞서 연구방법 및 연구의 범위에서 밝혔듯이, 연구의 내용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초·중등교육 부문도 함께 제도적으로 연계시켜 제주도민들에게 보다 주체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폭넓은 도민 의견을 구하고자 향후 이해당사자가 될 학생과 학부모 또는 교직종사자들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초·중등 기초교육 부문에 대한 인식과 선호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 앞으로 제주도민이 주체적 입장에서 국제자유도시 건립에 기여토록 기초교육 측면의 정책 흐름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교육의 과정부문의 실태는 앞에서 언급한 제2장 제3절 국제자유도시 교육부문 전략 중

첫째, 기초교육 연계추진 필요성, 둘째, 외국어교육실태, 셋째, 정보화·세계화 교육실태 및 넷째, 우수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1) 기초교육 연계추진 필요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초·중등기초교육 연계 추진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인식 정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표 4-1>과 같다.

<표 4-1> 제주도내 학생의 인식도

지역·학교급별	학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전체
	매우 잘 안다	잘 안다	조금 알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제주시 중학교		1 2.0%	33 66.0%	16 32.0%	50 100.0%
북제주군 중학교			28 57.1%	21 42.9%	49 100.0%
서귀포시· 남제주군 중학교	1 1.1%	4 4.4%	42 46.2%	44 48.4%	91 100.0%
인문계 남자고		9 17.3%	26 50.0%	17 32.7%	52 100.0%
인문계 여자고	1 1.9%	1 1.9%	37 69.8%	14 26.4%	53 100.0%
실업고	1 1.1%	5 5.3%	33 34.7%	56 58.9%	95 100.0%
전체	3 0.8%	20 5.1%	199 51.0%	168 43.1%	390 100.0%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학생 인식도는 전체적으로 56.9%가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답하여 전체학생의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인 경우에 지역별로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인 경우 인문계고교가 남·여 각각 67.3%와 73.6%로 ‘조금은 알고 있다’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업고인 경우는 41.1%로 계열별 비교면에서 볼 때 비교적 적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것은 조사지역으로 볼 때 실업고인 경우 남제주군에 위치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고교보다는 관심이 덜 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인식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이와 같은 학생들의 비교적 높은 관심도는 국제자유도시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4-2>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의 연계추진 필요성 인식도

구 분	귀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초·중등 기초교육 연계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반드시 필요	조금 필요	그저 그렇다	조금 불필요	불필요	
교원	84 35.0%	95 39.6%	44 18.3%	12 5.0%	5 2.1%	240 100.0%
교육전문직	7 53.8%	4 30.8%	2 15.4%			13 100.0%
지방공무원	46 48.4%	31 32.6%	13 13.7%	3 3.2%	2 2.1%	95 100.0%
학부모	13 31.0%	15 35.7%	12 28.6%		2 4.8%	42 100.0%
전 체	150 38.5%	145 37.2%	71 18.2%	15 3.8%	9 2.3%	390 100.0%

실제로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인 학부모의 반응을 보면 ‘조금 필요’ 이상의 응답자가 학교교육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은 74.6%, 교육정책 담당자인 교육전문직은 84.6%,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은 81%,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는 65.7%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정책과 기초교육이 동반연계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불필요하다’라고 반응을 보인 6.1%를 제외하면 93.9%가 연계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 외국어 교육실태

앞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외국어 능력수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어능력 수준과 외국어 능력배양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 4-3> 학생이 느끼는 외국어(영어) 능력 수준 실태

구 분	학생은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생활외국어(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의사소통 원활	의사소통 가능	의사소통 일부가능	의사소통 어려움	의사소통 안됨	
제주시 중학교	4 8.0%	7 14.0%	28 56.0% (78.0)	9 18.0%	2 4.0%	50 100.0%
북제주군 중학교		9 18.4%	24 49.0% (67.4)	15 30.6%	1 2.0%	49 100.0%
서귀포시 남제주군 중학교	6 6.6%	15 16.5%	53 58.2% (85.8)	10 11.0%	7 7.7%	91 100.0%
인문계 남자고	6 11.5%	11 21.2%	23 44.2% (76.9)	12 23.1%		52 100.0%
인문계 여자고		12 22.6%	33 62.3% (84.9)	8 15.1%		53 100.0%
실업고		3 3.2%	40 42.1% (45.3)	36 37.9%	16 16.8%	95 100.0%
전 체	16 4.1%	57 14.6%	201 51.5% (70.2)	90 23.1%	26 6.7%	390 100.0%

· ()는 의사소통 가능성 합계임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생활 외국어(영어) 능력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의사소통 일부 가능 이상의 견해를 보인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70.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생은 평균 77.0%, 고등학생은 평균 69.0%로 실업계 고교가 45.3%로 비교적 적게 나타나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는 외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 외국어 능력 수준에 대한 학생 스스로가 표현한 자신감 정도를 볼 때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표 4-4>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 외국어(영어) 능력 수준 실태

구 분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 내용으로 볼 때 보통 수준의 학생이 고교를 졸업했을 때 외국인과 생활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의사소통 원활	의사소통 가능	의사소통 일부 가능	의사소통 어려움	의사소통 안됨	
교원	1 0.4%	8 3.3%	103 42.7%	92 38.2%	37 15.4%	241 100.0%
교육전문직			6 46.2%	5 38.5%	2 15.4%	13 100.0%
지방공무원	1 1.1%	3 3.2%	23 24.2%	47 49.5%	21 22.1%	95 100.0%
학부모	2 4.8%	4 9.5%	9 21.4%	16 38.1%	11 26.2%	42 100.0%
전 체	4 1.0%	15 3.8%	141 36.1%	160 40.9%	71 18.2%	391 100.0%

전체적으로는 ‘의사소통 일부 가능’ 이상으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40.9%로 약간 저조한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과정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은 각각 46.4%와 46.2%로 어느 정도 교육과정의 편제가, 외국어 교육능력 향상에 대한 전체인식 결과인 40.9% 보다는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분석 결과를 볼 때 초·중·고교 영어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의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할지 모르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교졸업 후 자녀들이 외국어(영어) 의사소통 능력수준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안됨’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사인 경우 실제로 교단에서 느끼는 사실 인식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부모인 경우 자녀들의 전 교과목에 대한 평균성적과 외국어능력수준을 동일시하는 습관적 경향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5> 외국어 학습능력 장기적 배양 방안

구 분	외국어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방법 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학교교육 과정	외국어 학교운영	사업교육 기획이수	대학 강의	파워 및 교육방송	어학 연수	
학 생	제주시 중학교	10 20.4%	34 69.4%	5 10.2%			49 100.0%
	북제주군 중학교	23 48.9%	15 31.9%	6 12.8%	1 2.1%	2 4.2%	47 100.0%
	서귀포시 남제주군 중학교	22 25.0%	53 60.2%	12 13.6%			1 1.1% 88 100.0%
	인문계 남자고	8 16.0%	34 68.0%	8 16.0%			50 100.0%
	인문계 여자고	8 15.7%	31 60.8%	10 19.6%			2 3.9% 51 100.0%
	실업고	28 31.5%	51 57.3%	9 10.1%		1 1.1%	89 100.0%
	전 체	99 26.5%	218 58.3%	50 13.4%	1 0.3%	3 0.8%	3 0.8% 374 100.0%
교 직 원 · 학 부 모	교원	134 58.0%	86 37.2%	9 3.9%	2 0.9%		231 100.0%
	교육전문직	9 69.2%	3 23.1%	1 7.7%			13 100.0%
	지방공무원	57 62.6%	21 23.1%	10 11.0%	3 3.3%		91 100.0%
	학부모	32 80.0%	8 20.0%				40 100.0%
	전 체	232 61.9%	118 31.5%	20 5.3%	5 1.3%		375 00.0%

그리면 외국어 학습능력을 장기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자. 학생인 경우 '외국어 학교 훈련'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58.3%로 '학교교육과정'의 26.5%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사설 교육기관 이수'나 '어학연수'는 각각 13%와 8%로 다소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인 경우는 의외로 '학교교육과정' 61.9%와 '외국어학교훈련' 31.5%를 나타내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어 교육정책의 방향을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외국어 학교 설립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교육 실태

지금 세계각국은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교육에 기하 혁신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화 교육은 인류공동체로서 보편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과 경쟁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육성 교육이며, 정보화교육은 자율화, 다양화, 분권화에 바탕을 둔 삶의 가치교육과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화 교육이다.⁵⁹⁾ 이는 궁극적으로는 21C 지식정보 산업사회에 슬기롭게 대응하고자 하는 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제주인들이 주체가 되어 구현해 나가려면 세계화, 정보화교육도 기초교육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각 부문 전략 목표로 하는 영역에 전문적 소양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데 따른 지름길이기 때문이다.⁶⁰⁾

여기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교육 부문의 세계화·정보화 교육실태를 분석해 보겠다.

학생과 교직 종사자 그리고 학부모가 현행 기초교육부문에 대한 세계화, 정보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표 4-6>과 같다.

59) 구현만, "세계화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 p.3.

60) 고성준, 앞의 논문(주31), p.33.

<표 4-6>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 실태

구 분	학생은 현재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이 앞으로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도움	조금 도움	그저 그렇다	미흡	아주 미흡	
학생	26 6.7%	135 34.6%	149 38.2%	58 14.9%	22 5.6%	390 100.0%
구 분	현행 학교 교육과정에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과정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충분히 반영	충분히 반영	보통	미흡하게 반영	거의 반영 안됨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3 0.8%	36 9.2%	174 44.5%	162 41.4%	16 4.1%	391 100.0%

현행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실태를 보면 학생들에게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매우 도움’과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각각 6.7%와 34.6%로 전체 41.3%이며, ‘미흡’ 또는 ‘아주 미흡’으로 부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은 각각 14.9%와 5.6%로 합하면 20.5%로 현행 기초교육의 교과과정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종사자와 학부모는 10%만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미흡’ 또는 ‘거의 반영 안됨’으로 답한 응답자수는 전체 45.5%이다.

앞의 분석결과에서는 학생, 교직종사자, 학부모 모두 절반이하로 충분치 못한 의견을 제시하여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 주체적 역할을 위해서는 현행 교과과정이 보다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육방식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 조사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 강화 방안

구 분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세계화 및 지식정보교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 사회교육 프로그램	초·중등 기초교육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각종 단체 프로그램	
학생	101 26.2%	243 63.0%	6 1.6%	36 9.3%	386 100.0%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57 15.5%	182 49.5%	25 6.8%	104 28.3%	368 100.0%

설문조사 결과 세계화·정보화 교육 강화방법으로 학생은 '초·중등 기초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63.0%가 선호하였고 교직종사자 역시 49.5%를 선택하여 세계화, 지식정보화교육은 초·중등기초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화된 교육과정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역시 그 다음으로 선호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기관과 개발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연계되어야 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4) 우수인력 확보방안

국내외적으로 하이테크산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에는 자연환경 및 지방정부의 의욕 외에는 별다른 경쟁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는 제주를 농업 및 생명공학분야에 세계유수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교육시설을 개발·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창출하기 위한 우수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종사할 우수인력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⁶¹⁾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초교육부문의 실태를 우수학생 유치와 우수교육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먼저 예상되는 제주도 출신

61) 제주도, 앞의 책, p.114.

우수학생의 거주 희망도는 <표 4-8>과 같다.

<표 4-8> 국제자유도시 관련 제주출신 우수학생 도내 거주 희망도

지역 학교급별	학생은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제주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외국이나 서울 등지에서 우수인력으로 인정받아도 제주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갈 의향이 있으신지요?					전체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제주시 중학교	3 6.0%	12 24.0%	27 54.0%	5 10.0%	3 6.0%	50 100.0%
북제주군 중학교	5 10.2%	15 30.6%	24 49.0%		5 10.2%	49 100.0%
서귀포시 남제주군 중학교	3 3.3%	19 20.9%	47 51.6%	11 12.1%	11 12.1%	91 100.0%
인문계 남자고	8 15.4%	14 26.9%	20 38.5%	6 11.5%	4 7.7%	52 100.0%
인문계 여자고	6 11.3%	13 24.5%	23 43.4%	6 11.3%	5 9.4%	53 100.0%
실업고	6 6.3%	30 31.6%	44 46.3%	10 10.5%	5 5.3%	95 100.0%
전체	31 7.9%	103 26.4%	185 47.4%	38 9.7%	33 8.5%	390 100.0%

전체 응답자중 ‘매우 긍정’ 7.9%, ‘긍정’ 26.4%, 보통 47.4%로 모두 여건만 허락한다면 전체 중 81.7%가 우수학생으로 인정받아도 제주도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것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제주도민의 주체적 참여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통계 수치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우수학생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문계 남·여고생들의 반응이 각각 15.4%와 11.3%로 중학생과 실업고생보다도 ‘매우 긍정’한다고 반응을 보여 전체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고교생보다 적은 중학생들에게는 향후 비전의 전망이 밝을수록 고교생

보다 더욱 제주도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9> 우수학생 학부모 자녀도내 거주 희망도

구 분	향후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여건이 맞는 일자리가 많이 주어진다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자녀를 제주도에 거주시킬 의향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전체
	반드시 거주시킨다	가급적 거주시킨다	거주를 권고한다	본인의사를 따른다	관심없다	
교원	29 12.0%	99 41.1%	38 15.8%	74 30.7%	1 0.4%	241 100.0%
교육전문직	1 7.7%	8 61.5%	3 23.1%	1 7.7%		13 100.0%
지방공무원	24 25.3%	23 24.2%	18 18.9%	30 31.6%		95 100.0%
학부모	4 9.5%	14 33.3%	10 23.8%	14 33.3%		42 100.0%
전 체	58 14.8%	144 36.8%	69 17.6%	119 30.4%	1 0.3%	391 100.0%

학부모 역시 전체 응답자 중 반드시 또는 가급적 ‘거주시키거나’ ‘거주를 권고한다’는 반응이 69.2%로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학력이 높고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인 경우 반드시 또는 가급적 ‘거주시킨다’라는 반응이 각각 53.1%, 69.2%로 학생의견과 유사한 긍정적 통계수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타시도 출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표 4-10> 교육제도적 부문 우수학생 유치방안

구 분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외국 유명대학 분교 설치	국제관광대학 연계 활성화	우수인력 인센티브 제도화	도내대학 수준 향상	
학생	51 13.6%	157 41.9%	72 19.2%	93 24.8%	373 100.0%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58 15.1%	78 20.3%	105 27.3%	143 37.2%	384 100.0%
전체	109 14.3%	235 31.1%	177 23.3%	236 31.3%	757 100.0%

제주도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육환경(학생용 설문)과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방안(교직종사자 및 학부모용 설문)에 대한 응답항목을 동일하게 하여 757명의 반응을 집계한 결과 '도내대학 질적 수준향상'이 37.2%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어서 '우수인력 인센티브제도화'가 27.3%이며 그 다음으로 '국제관광대학 연계 활성화'가 20.3%, '외국 유명대학 분교 설치'가 15.1%로 비교적 모든 항목이 정책적 과제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우수교원 확보방안

구 분	국제자유도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초·중등 기초교육을 담당할 우수교원 확보방안은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교원 수급차율 권을 교육감에 제 이관	교원간 전문성 정도에 따라 이 종 교육임용방 식 도입	특수분야 자격 증 소지자도 임 용자격 대상자 로 완화	개방형 직위형 태로 교원채용 방식 다양화	기초교육 담당 교사의 외국언 어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115 29.8%	63 16.3%	99 25.6%	108 28.0%	1 0.3%	386 100.0%

첨단하이테크산업과 생명과학 등 첨단산업 교육시설과 초·중등 기초교육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방안은 '교원수급권을 교육감에게 이관'이 29.8%로 가장 높으며 '특수분야 자격증소지자도 교원임용자격 부여' 25.6%와 '개방형 직위형태 등 임용방식 다양화'도 28%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 교원채용방식에 다양성을 부여해야 하는 문제와 우선은 교사 수급 권한이 자유롭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2. 교육의 과정부문 문제점

본 연구의 목적과 핵심 분야별 시사점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와 정부, 그리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10년 후 주인공이 되는 기초교육 대상자의 의식과 도민 그리고 교육 이해당사자의 성향 및 인식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용역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첫째, 지역사회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개방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로서 지역사회가 국제적으로 개방되고 교류를 중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삶의 단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지역사회 주민에게 국제이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적 측면이다⁶²⁾라고 할 때 국제자유도시의 전략적 측면에서 기초교육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연계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며 설문응답자의 93.9%가 연계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외국어교육은 국제화시대 전문성 있는 어휘구사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제주도 전역에서 지역, 장소 구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임이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과는 다른 교직원·학부모가 느끼는 기초교육과정 졸업 후 생활외국어(영

62) 김종수, 앞의 책, p.50.

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다소 부정적 신뢰도 해소 문제와 현행 ‘교육과정의 강화’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외국어학교 훈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교육은 국가 또는 지방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교과과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응답자의 부정적 반응에 따라 지방정부와 기초교육 담당기관에서는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세계화·정보화 교육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행 학교교육과정을 한층 더 강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교육의 과정 부문에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점차로 추진되어 첨단산업에 종사할 제주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교사학보권과 다양한 채용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교육환경면에서 도내대학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우수학생이 제주도내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第 2 節 教育의 意識部門 實態 및 問題點

1. 교육의 의식부문 실태

교육의 의식부문은 주로 도민의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용역실태 보고서에서는 관광부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광산업의 의미는 제주도를 “즐거운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추진 핵심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서 초·중등 기초교육분야에서는 교육과정의 국제화, 친절교육 및 외국손님과 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등이 관련되고 있으며 다른 경쟁지역과 차별화를 위한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교육, 제주인 정체성 보존교육과 기초교육에 산학 프로그램 도입 등도 관련이 있다. 교육의 의식부문 실태는 앞서 언급한

제2장 제3절 교육부문전략 중 교육의 의식부문 시사점을 중심으로 첫째, 제주인 정체성 교육방안, 둘째, 직업진로교육과 산학협동 체제구축, 셋째,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보겠다.

1) 제주인 정체성 교육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목표 중 첫째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용역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초·중등학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표 4-1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4-12> 초·중학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구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현재 초·중등 학교에서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할 교육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외국어 교육	세계화, 정보화 교육	제주인 정체성 교육	교육시설 확충	평화 및 국제 이해 교육	
교원	42 17.4%	52 21.6%	108 44.8%	11 4.6%	28 11.6%	241 100.0%
교육전문직	3 23.1%	3 23.1%	5 38.5%	1 7.7%	1 7.7%	13 100.0%
지방공무원	18 18.9%	32 33.7%	30 31.6%	9 9.5%	6 6.3%	95 100.0%
학부모	13 31.7%	17 41.5%	8 19.5%	2 4.9%	1 2.4%	41 100.0%
전체	76 19.5%	104 26.7%	151 38.7%	23 5.9%	36 9.2%	390 100.0%

분석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초·중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전체 응답자 중 38.7%가 ‘제주인 정체성’ 교육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 지방공무원 모두 제주인 정체성교육

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부모인 경우에만 41.5%가 세계화, 정보화 교육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제주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한 문화정체성 보존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제주문화정체성 보존 방안

구 분	제주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한 문화정체성 보존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제주어 전승보존	전통문화 행사 보존	전통 유·무형 문화재 보존	학교의 정체성 보존 교육		
학생	50 13.1%	139 36.4%	161 42.1%	32 8.4%	382 100.0%	

공무원, 학부모 등은 기성세대로서 제주전통문화를 체험한 세대로 간주하여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42.1%가 ‘전통 유·무형 문화재 보존’을 선택하였으며 ‘전통문화 행사 보존’은 36.4%로 그 다음이다. 또한 제주어 전승보존은 13.1%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교의 정체성 보존’ 교육은 가장 낮은 8.4%로서 학교 ‘전통문화전승 보존’ 교육이 신뢰성 있게 학생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업진로선택과 산학협동

Marland는 진로교육의 접근방법이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대학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고,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⁶³⁾ 초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소질 발견과 직업의 이해 및 장래에 대한 포부를 중학교과정에서는 직업세계의 탐색과 잠정적인 진로계획의 수립, 고등학교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의 수립과 선

63) Marland, Sindy P. *Career Education Now*. "Paper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Houston, Texas, January, 1971, p.15.

택분야에 대한 기술을 준비하여 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⁴⁾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미래 청사진이 결국 제주도민이 '잘 사는 삶'과 '가치있는 삶'의 확보에 있다면 진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교육의 선택 방향 등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해 보겠다.

학생들이 느끼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성공기대감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학생들이 인식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공 가능성

구 분	학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성공	조금 성공	모르겠다	성공 희박	성공 불가능	
학생	11 2.8%	84 21.5%	232 59.5%	55 14.1%	8 2.1%	390 100.0%

학생들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느끼는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는 59.5%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견해는 16.2%로 응답하여 실제로 추진 성과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추진 내용들이 현재 재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만큼 정책추진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표 4-15> 학생의 최종학력 진로 희망도

구 분	학생은 최종학력 이수를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학생	31 7.9%	269 69.0%	58 14.9%	32 8.2%	390 100.0%

64) 정두완 외 5명, 「제주진로교육」(제주학생문화원, 2000), p.16.

이미 언급된 바 있듯이 용역보고서는 제주도를 평균이하의 교육수준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표 4-15>의 최종학력 진로 희망조사에서는 92.1%가 여건이 되면 고등교육 이수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종사 인력 확보 정책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학생들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종사회망 분야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보겠다.

<표 4-16>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직업진로 선호 실태

구 분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진로를 바꾼다면 어떤 분야를 가장 선호 하십니까?						전체
		관광 분야	과학기술 분야	국제금융 분야	회의산업 분야	체육(운동) 분야	외교 분야	
학 生	남	51 33.8%	51 33.8%	28 18.5%	17 11.3%	4 2.6%		151 100.0%
	여	136 64.2%	38 17.9%	26 12.3%	11 5.2%		1 0.5%	212 100.0%
전체		187 51.5%	89 24.5%	54 14.9%	28 7.7%	4 1.1%	1 0.3%	363 100.0%

통계결과에서 보면 제주도내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관광분야’로서 51.5%이며 ‘과학기술’ 24.5%, ‘국제금융’ 14.9%, ‘회의산업’ 7.7%이고 ‘관광분야’는 남자보다 여학생이 64.2%로 그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그러면 학생들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진척되어 산학협동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직업진로 선택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살펴보겠다.

<표 4-17> 산학협동프로그램 참가 희망 시기

구 분	학생은 국제자유도시 주민과정이 전환되어 산학협동직업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체
	고교재학 중 회망	고졸 후 회망	대학재학 중 회망	대학졸업 후 회망	
학생	47 12.4%	68 17.9%	110 29.0%	154 40.6%	379 100.0%

직업프로그램에는 '대학졸업 후 희망'이 40.6%이고, 대학 재학중 희망도 29.0%로 전체 69.6%가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로 참가시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학생들의 경제력과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 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 4-18>과 같다.

<표 4-18>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구 분	국제자유도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면 방안은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인력양성기관 예 지원	도내업체 입사후 개인지원	양성기관과 개인지원 병행	도내기업 입사전 학비지원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155 40.2%	34 8.8%	178 46.1%	19 4.9%	386 100.0%

위 <표 4-18>에서 직업프로그램 참가 희망시기가 '대학 재학중' 또는 '대출 후'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표 4-18>에서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인력양성기관지원' 40.2%이며 '양성기관과 개인지원 병행'이 46.1%로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재학 중 직업프로그램 참가를 원한 경우 장학금 형태의 학비지원을, 졸업 후 직업프로그램을 원할 경우

우수인력에 대한 보상과 입사전 학비지원도 함께 원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 관광기관에서는 우수인력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기 정책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3) '평화의 섬' 구축에 따른 평화교육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대학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평화교육에 대한 일반적 서술일 뿐이지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서 어떻게 접목되어 실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화교육의 실행단위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등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실천적 활동으로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네스코 국제이해 교육과 유니세프(UNICEF)의 '지구촌 클럽'은 양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전쟁을 불식시키고 국제이해평화를 위한 교육은 세계수준에서 의미있는 평화교육이지만 여전히 정치적 통제로 인해 비판적 평화교육이 위험시되는 우리나라는 학교의 국제이해 교육이 전부이다.⁶⁵⁾ 여기에 제주도 및 우리나라의 과제인 4·3문제, 남북통일문제 등은 세계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교육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념정립이 되어야만 할 과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주도 '평화의 섬'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타당성 있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실천방안은 어떤 것인지 도민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평화교육에 대한 설문 응답자 인식도는 <표 4-19>와 같다.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인 경우 평화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는 '잘 알고 있다' 7.9%, '조금 알고 있다' 37.6%, '그저 그렇다'가 37.9%로 나타나서 '모르고 있다' 등 부정적인 응답자 16.6%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 경우는 46.4%가 '모르고 있다' 등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알고 있다' 등으로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응한 학생은 12.1%로 어른과는 대조적인 통계 수치를 보이고 있다.

65) 강순원, 앞의 책, p.61.

<표 4-19> ‘평화교육’ 인식 실태

구 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평화의 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귀하는 이에 따른 ‘평화교육’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체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그저 그렇다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31 7.9%	147 37.6%	148 37.9%	51 13.0%	14 3.6%	391 100.0%
학생	7 1.8%	40 10.3%	123 31.5%	144 36.9%	76 19.5%	390 100.0%

통계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인 경우 ‘모르고 있다’에 ‘그저 그렇다’ 31.5%를 포함하면 77.9%가 인식이 저조하여 평화교육에 대한 개념과 실천적 방향 등은 ‘평화의 섬’ 지정과 함께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면 이러한 ‘평화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표 4-20>과 같다.

<표 4-20> 평화교육의 주체

구 분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교육'의 담당 주체는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지방자치 단체	초·중등 교육기관	대학	언론기관	평생교육 기관	
학생	35 9.0%	191 40.9%	25 6.4%	63 16.2%	76 19.5%	390 100.0%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176 45.2%	170 43.7%	20 5.1%	22 5.7%	1 0.3%	389 100.0%

학생은 평화교육의 담당 주체를 ‘초·중등 교육기관’ 40.9%로 가장 선호하였으나,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는 ‘지방자치단체’ 45.2%와 ‘초·중등교육기관’ 43.7%로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담당주체와 관련하여 ‘평화의 섬’ 추진기

관인 지방정부와 교육기관 사이에서 연계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은 ‘평화교육’ 내용 중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표 4-21>과 같다.

<표 4-21> 평화교육 내용에 비중을 두어야 할 과제

구 분		학생이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평화교육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학 생	남북통일 교육	제주 4·3과 도민화합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 주의		
	중학생	72 39.3%	31 16.9%	9 0.5%	71 38.7%	83 100.0%
	고등학생	49 25.2%	58 29.8%	12 0.6%	75 38.6%	194 100.0%
계	121 32.1%	89 23.6%	21 5.6%	146 38.7%	377 100.0%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137 35.8%	111 29.0%	18 4.7%	117 30.5%	383 100.0%	

‘평화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비중을 두어야 할 과제로 학생은 ‘세계평화주의’ 38.7%, ‘남북통일교육’ 32.1%, ‘제주 4·3과 도민화합’은 23.6%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생은 남북통일 교육과 세계평화교육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선택하였다. 고등학생은 세계평화주의 교육을 가장 비중있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인 경우 ‘세계평화주의’ 30.5%보다 ‘남북통일교육’ 35.8%를 우선시하였으며 제주도에 가장 민감한 4·3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어른 모두 세 번째 과제로 응답하였다.

2. 교육의 의식부문 문제점

제주관광은 1998년 IMF 시대의 국가적 위기로 23개 단지 지구와 민간개발 투

자의 부진, 대규모 리조트 단지 개발 등 대안적 외자유치의 현실적 어려움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국내외 관광지간 대경쟁(megacompetition) 등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웨트웨어(wetware)적 측면에서 보면 고용을 창출하고 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며 협력적 파트너 쉽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⁶⁶⁾고 지적되고 있다. 급속하게 변해가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시장지향적 패러다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광정책의 수월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광에서도 기초교육을 통한 본질적인 친절서비스 교육과 제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의식교육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학생들의 관광산업에 대한 진로와 직업선택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의 의식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교육의 의식 부문에서 제주인 정체성 교육은 ‘외국어 교육’, ‘세계화 교육’, ‘교육시설 확충’ 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설문조사결과 나타났으며 또한 문화정체성 보존방법에는 학교교육보다는 ‘전통문화 행사 및 유·무형 문화재 보존’을 우선해야 한다고 선호하여 학교교육과정에서 제주전통문화전승 보존교육이 학생들에게 충분치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둘째, 직업진로선택과 산학협동 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가시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성과 및 이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여 우수학생이 제주에서 직업을 갖도록 정책 홍보와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학 협동프로그램이 가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기업체간 협력방안과 국제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조기에 개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제주를 대규모 군사기지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4·3사건과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三無精神’을 평화의 원초적 정형으로 하는 ‘평화의 섬’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필수적 요소인 평화교육은 설문

66) 송재호·정승호, “제주도 관광조직 체계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주발전연구」, 제4호, p.89.

결과, 학생은 교육기관에서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는 지방정부에서 그 담당 주체가 되기를 선호하고 있어 두 기관간 협력적 개념정립과 교육 시스템 구성 등 주체적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第 3 節 教育의 法·制度部門 實態 및 問題點

1. 교육의 법·제도부문 실태

세계화 시대는 국제사회 현실 속에서 지방 스스로가 자율적인 국제관계 및 국제 협력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도 국제적 감각 및 행동양식을 내면화하고 외국의 이질적인 관습 및 문화에 대해서 널리 이해하고 수용하는 포용력과 관용성을 키워가야 한다.⁶⁷⁾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신 제정법에서는 국제수준의 행정조직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센티브 정책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⁸⁾

이와 같은 것은 교육의 법·제도부문에서도 국제수준을 수용하기 위한 행정조직 및 기초교육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인의 지도감독 및 행정서비스 문제 등 국제화 시대 국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규제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도민의 입장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교육법률과 통제제도 및 행정 조직 등에 대하여 스스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 교육분야는 별도로 법을 개정하거나 규제적 요소들에 대하여 철폐를 주장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입장에서 첫째, 제주도를 교육규제 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신제정 특례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당위성과 관련된 교육규제 실태와 둘째, 국제자유도시 주요정책기구의 초·중등교육전문가 참여에 대한 도민인식 실태를 알아보겠다.

67) 고성준, 앞의 논문(주31), p.36.

68) 제주도, 앞의 책, p.259.

1) 교육규제자유지역 설정

교육규제자유지역의 추진은 특정행정구역 내에서 특정부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분야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창의력과 경쟁시장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협의의 개념이다. 규제자유지역은 지방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교육, 창업, 관광, 문화 등에 대하여 승인을 획득하면 된다. 법적인 근거는 행정규제법을 개정하거나 (가칭)규제자유지역기본법 등을 제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자유지역 설치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곳에 외국대학의 분교가 설치되고 고품질의 전문교육기관이 들어서면 다른 지방 해외유학의 수요가 이곳으로 몰리고 이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다.⁶⁹⁾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교육규제의 실태를 분석해 보겠다.

<표 4-22> 교육규제의 정도

구 분	귀하께서는 교육분야 법·제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매우 심각	조금 심각	보통	별로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교원	42 17.4%	112 46.5%	82 34.0%	3 1.2%	2 0.8%	241 100.0%
교육전문직	1 7.7%	6 46.2%	5 38.5%	1 7.7%		13 100.0%
지방공무원	10 10.5%	28 29.5%	51 53.7%	6 6.3%		95 100.0%
학부모	8 19.0%	15 35.7%	19 45.2%			42 100.0%
전 체	61 15.6%	161 41.2%	157 40.2%	10 2.6%	2 0.5%	390 100.0%

69) 김일섭, “규제자유지역의 의의 및 필요성”, 「규제자유지역 개념의 제주도 적용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00), p.5.

교육규제 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 15.6%와 ‘조금 심각’이 41.2%로 전체 응답자 중 56.8%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음’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3.1%에 불과하며 ‘보통’으로 응답한 40.2%와 ‘심각하다’는 반응을 합하면 모두 97.0%로서 교육규제의 정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심각한 교육규제 분야

구 분	귀하께서는 교육부문에 규제가 심각하다면 어느 부문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 법 또는 내부통제	도의회 등 자치기관 조례 또는 내부통제	교육청 등 행정기관 행정통제	학교운영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관 간섭	
교원	117 49.8%	15 6.4%	94 40.0%	9 3.8%	235 100.0%
교육전문직	7 53.8%	3 23.1%	3 23.1%		13 100.0%
지방공무원	44 46.8%	33 35.1%	8 8.5%	9 9.6%	94 100.0%
학부모	14 37.8%	4 10.8%	15 40.5%	4 10.8%	37 100.0%
전 체	182 48.0%	55 14.5%	120 31.7%	22 5.8%	379 100.0%

가장 심각한 교육 규제부문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법 또는 행정기관 내부통제’가 31.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과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 ‘도의회 등 자치기관 조례 또는 내부통제’도 두번째 높게 심각한 교육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방자치 이념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통제범위를 재조정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표 4-24> 교육규제 개혁 방향

구 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교육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떤 모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포함하여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설정	현행 제도진 행침에 따라 추진	제주도 교육기관 독자적으로 '교육규제 자유지역' 지정 추진	제주도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교육규제 내용 일부 폐지 추진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192 49.6%	47 12.1%	102 26.4%	46 11.9%	387 100.0%

교육규제개혁의 방향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포함하여 교육규제 자유지역으로 설정'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5> 교육규제 완화 대상 설정 범위

구 분	귀하께서는 제주도를 '교육규제 자유지역'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규제 완화대상 설정 범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교육 법·제도 부문 완화	제도와 교육학예 모든 부문에 대하여 완화	교육행정 조직 및 교육학예에 관한 부문만 완화	외국인과 관련된 교육규제 부문만 완화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	91 23.5%	234 60.5%	53 13.7%	9 2.3%	387 100.0%

교육규제 완화대상 설정범위에 대하여는 '제도와 교육학예 모든부문에 대하여 완화'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교육 법·제도 부문만 완화'에 23.5%의 반응을 보였다.

2) 국제자유도시 주요정책기구에 초·중등교육전문가 참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의 과정 분야’, ‘교육의 의식 분야’ 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에서 검토 추진중인 ‘교육규제 자유지역 지정’ 부문외에도 기초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교육전문가를 주요정책기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초교육부문 문제점뿐만 아니라 핵심 전략부문에 대한 역기능 저감방안에서 범죄 등 반사회적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문제, 문화 차이에 따른 외국인과의 지역주민 갈등 해소문제, 다국적 문화 유입 증대에 따른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훼손 등 정체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은 물리적 측면이 아닌 교육강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연구 용역결과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기초교육부문을 정책과제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정책기구에 기초교육전문가 참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 정책추진기구에 교육전문가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4-26>과 같다.

<표 4-26> 기초교육 전문가 정책 참여 필요성

구 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초·중등 기초교육전문가의 정책 참여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정책 추진 모든 분야 참여	정책내용에 따라 참여	기초교육 부문만 참여	교육분야는 모두 참여	
교원	59 24.7%	113 47.3%	15 6.3%	52 21.8%	239 100.0%
교육 전문직		10 76.9%		3 23.1%	13 100.0%
지방공무원	15 15.8%	48 50.5%	7 7.4%	25 26.3%	95 100.0%
학부모	8 20.0%	19 47.5%	1 2.5%	12 30.0%	40 100.0%
전 체	82 21.2%	190 49.1%	23 5.9%	92 23.8%	387 100.0%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내용에 따라 참여’가 49.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교육분야는 모두 참여’가 23.8%이며 ‘정책 모든 분야 참여’는 21.2%이다. 이것은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환경적 측면의 정책에도 교육과 관련이 되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2. 교육의 법·제도부문 문제점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 법·제도부문에서 투자환경, 국제관광, 국제물류, 국제금융, 출입국 관리, 조세제도, 지방제도 추진기구 등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설정, 특별법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제도’ 부문에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앞서 교육의 법·제도 부문 실태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부문 법·제도 분야에도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교육규제 자유지역 지정 추진 등 교육, 문화, 사회, 경제가 부문별로 규제완화 대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분야들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추진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초·중등 기초교육 대상자들은 10년 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주체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금융, 관광 등 경제적 이익창출로 도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세계시민의 육성과 분야별 종사 인력을 제주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중요도에 비추어 주요 정책기구에 기초교육전문가 참여가 저조한 실정에 있다.

第 5 章 國際自由都市 推進과 初·中等教育部門 改善方案

第 1 節 教育의 課程部門 改善方案

1. 초·중등교육과 연계 추진 방안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地球村)이 되고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합되어 가는 등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한편으로는 개인간 정책기구간, 나라간 경쟁이 무한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과 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의 고립은 우리사회의 경쟁력 상실과 낙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⁷⁰⁾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통하여 제주도를 “지식의 섬”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용역보고서 내용에는 기초교육에 대한 연계된 추진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21C를 대비한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주도 교육청의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 전략인 ‘21세기 제주교육기본 구상(2001~2010)’에서는 기본구상 배경을 ‘변화하는 세계’, ‘미래의 한국’의 모습과 제주도의 발전 전망에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사람, 자본, 상품이 자유로이 이동되는 도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로 도민의 삶 제고, ‘평화의 섬’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동북아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을 그 미래 모습으로 하여 제주교육의 기본구상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일반 행정자치기관인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자치기관인 교

70) 교육부, 앞의 책(주27), p.1.

육집행기관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잘 사는 제주도민’과 ‘주민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분야별 지역협의체 구성 등 협력적 동반 정책기구가 가시화되지 못함으로써 초·중등기초교육과 연계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은 <표 4-1>에서 학생들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식도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1.3%가 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자치제도의 2중적 구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가 발전되어온 것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⁷¹⁾ 일반자치와 지방교육자치와의 연계부족에 따른 비능률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일부에서는 개선요구도 점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교육자치란 지방의 사무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인 바 교사, 학생, 학부모 또는 주민이 교육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교육(교수-학습)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⁷²⁾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에 대한 궁극적 목표가 일치하므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과 교육부문 연계 개선방안은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지방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⁷³⁾ 다시 말해서 적절한 시기에 두 기관 간에 가칭 ‘교육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추진 방향과 교육모델들에 대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의 주체인 정책담당기구에서 전략적 정책을 제시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세부교육시행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분과협의체에서는 공청회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법적 규제조치를 완화시켜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과 비

71) 변창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개선모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84.

72) 이승종,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제46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p.10.

73)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대영출판사, 1999), p.164.

전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개발주체의 정책담당기구에서 전략적 정책을 제시하고 교육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독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포함하여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외국어교육 개선방안

국제자유도시 추진뿐만 아니라 21C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사실상 국제공용어가 되어 있는 영어에 대한 기본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영어 읽기(reading), 쓰기(writing), 듣기(listening) 교육과 함께 말하기(speaking) 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제가 외국어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범위가 외국어로 확대되어 있으나 <표 5-1>의 외국어교육의 선호도에 따라 범위를 영어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표 5-1> 외국어교육의 순서

구 분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학교에서 어떤 외국어교육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영 어	일 어	중국어	
교사·학생·학부모	601 83.0%	86 12.0%	29 4.1%	724 100.0%

자료 :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 1995, p.161.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10년까지 영어교육정책 방향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외국인과 의사소통⁷⁴⁾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학교영어교육을 의사소통 중심으로

74) Littlewood, W.T. Language vari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Applied Linguistics*, vol. 2, 1981, pp. 150-158.

전환한다⁷⁵⁾고 밝혔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공용영어’에만 가르쳐야 할 기준을 Canale and Swain⁷⁶⁾이 제시한 기준인 의사소통 항목별로 문법적 용어를 배제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예시문을 작성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 구분없이 교사가 적절히 선택하여 지도토록 하고 있다.⁷⁷⁾

현재 중·고생이 제주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후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2% ‘의사소통 일부 가능’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교사·학부모 등은 59.1%가 의사소통이 안 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외적 영어교육기관과 학교교육과정 이수를 포함한 학생 반응의 차이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외국어(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영어교사의 확보이다. 초·중·고등학교 영어담당교사들의 영어 회화 능력 신장을 위해 양성 및 임용단계에서부터 영어회화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되도록 교대·사대의 영어전공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임용 요건에 의사소통 평가기준을 확대하여 영어교사의 회화수준을 강화한다.⁷⁸⁾

둘째,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를 IMF사태 이전 수준으로 증원하고 그 정원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영어능력 향상방법으로 학생은 58.3%가 ‘외국어 학교훈련’을 학부모는 80%가 ‘학교교육과정’을 선호하고 있음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외에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재량시간과 특활시간을 증배 활용토록 권고하여야 하며, 특기적성교육시간에 영어과목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되어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시기를 앞당기고 2004년까지 완공예정인 외국어학습관 교육프로그램과 활성화 방안을 조기에 수립, 준비한다.⁷⁹⁾

75) 교육부, 앞의 책(주27), p.35.

76) Canale & Swain.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vol. 1, 1980, pp. 1-47.

77) 이홍수, 「외국어 습득 및 교육과정론」 (한국문화사, 1999), p.286.

78) 교육부, 앞의 책(주27), p.37.

79)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10년까지 외국어고등학교 1개교 설립에 예산 70억과 2004년 까지 외국어학습관 1개소 설립에 40억의 소요예산 투자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외국어(영어) 교육관련에서는 2010년까지 7개 사업에 130억 예산을 투자할 계

넷째, 우수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장기해외 연수를 제공하고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을 도모하며 일반 영어교사 해외연수도 3개월 이상 실시한다.⁸⁰⁾

다섯째, ‘영어의 제2공용어’ 추진은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 뿐만 아니라 ‘21C 제주교육기본 구상’에서도 제시되고 있으며 영어의 통용은 국제자유도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세심한 방안을 마련하여⁸¹⁾ 교육기관 내에 앞에서 제시한 교육분과협의회와 같은 ‘교류 협력 부서’를 설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여섯째,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어 학교훈련’은 현실적으로 교육기반 시설이 취약하므로 외국인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유치하되 입학 자격은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국제사정을 고려하여 내국인도 입학을 허용하거나 이수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을 인정한 시범외국인 학교를 유치해야 하며 지방정부에서는 재정과 조세감면의 인센티브정책 등을 수립,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 원어민촌(原語民村)과 같은 형태의 교육형 외국인촌을 유치하여 국내의 외국어교육 수요자를 수용하고 한편 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들도 유치시켜 경제적 이익 창출과 제주도 이미지를 관광·외국어 연구의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⁸²⁾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외국어교재 개발 및 교육센터설치, 교사중심의 task force 팀 구성, 제주도 현실에 맞는 영어교재의 개발, 그리고 제주도와 연관있는 미시간주립대, 하와이대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및 실험적 운영방안, 수립 등이다.

3. 지식정보화·세계화 교육방안

앞서 살펴본 실태분석과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교육

획을 이미 수립하였다.(주1)

80) 구현만, 앞의 논문, p.41.

81) 박삼옥, ‘제주의 도약 IT 속에 살길이 있다.’ 한겨레신문(2001. 5. 16). 제7면.

82) 석혜경, ‘국제자유도시 원어민촌을’, 제주일보(2001. 3.28).

은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초·중등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학습장소에 대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매체와 전산망으로 인한 지식의 보편적 접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2005년에는 이미 학습장소의 다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는 교육기관들에게 중대한 요구를 할 것이다. 이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기관들은 점증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며 타 기관과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다른 세계에 대한 개방을 한층 더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⁸³⁾라고 하여 지식기반사회는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편뿐만 아니라 학습장소의 다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제주도교육기관에서는 이미 2001년에 인터넷교육방송국을 개국하여 주문형방송을 통한 학습자중심의 수준별 학습방송과 사이버(cyber) 교육방송을 구축·운영하여 우수수업을 학년별, 교과단위로 수업방송을 실시하고 웹PD 공모제 실시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준비중에 있다.

또한 사이버방송 도서관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 기존에 제작된 동영상 수업자료를 VOD로 구축하고 있다.⁸⁴⁾ 이러한 것은 학습장소의 다변화 측면에서 좋은 예로 볼 수가 있겠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제주도내 이러한 지식정보화기반 구축 의지는 향후 정책추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교육의 세계화 부문과 관련해서는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이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제주도교육청의 '세계화교육 용역보고서(1995)' 내용에 의하면 세계화는 최종적으로 외국어교육의 구조적 취약점이다⁸⁵⁾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앞서 외국어 교육개선방안에서 개선 내용에 대하

83) 교육부,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선명인쇄사, 2000), p.16.

84) 제주도교육청, 앞의 책(주1), pp.86-87.

85) 문정인외 5명, "제주교육의 세계화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제주도교육청, 1995), p.285.

여 다루었으므로 본절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지식정보화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국제자유도시로서 최소한의 국가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국제환경에 적응할 다양한 차원에서 지식을 끌어낼 수 있는 ‘학문간연계(interdisciplinarity)’ 즉 중요한 지식사이를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⁸⁶⁾ 제주도 독자적인 교육과정과 교육시책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식·정보화를 응용하는 창조력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민으로서 인성과 재질을 함양할 수 있는 인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 대학입시제도에서 특례 또는 특별전형 방안도 인정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제주에서 우선적으로 현행법⁸⁷⁾ 테두리에서 허용되는 자율학교로서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원임용 등 예외가 인정되는 자율시범학교 형태의 교육기관 운영을 표본으로 정책에 반영할수 있도록 정책추진기구와 교육기관에서는 정부 정책 추진기획단에 정책 건의를 필요로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 있어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교사의 역할은 교과지식의 교육에서 학습자에 대한 안내, 지원 상담역할로 변화하여야 하며, 학습자는 자기주도성과 자립심으로 전 생애에 걸친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성숙한 판단력(mature judgment)을 길러야만 한다. 즉 이러한 판단력은 교사와 학습자간에 권위적인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는 태도에서 길러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있는 모습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점차로 주입식 전달자 역할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중재자(moderators) 역할을 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행정당국이 우선적으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적 재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교육행정가의 역할도 흔히

86) 독일교육연구부의 델파이 I의 연구조사 내용으로서 지식기반사회에서 향후 25년 이내에 학문간 연계가 중요시 되는 지식분야는 “환경, 세계화(globalization), 인류(mankind), 기술, 사회질서(social order)로 분류하고 있다.

87)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의 특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학생, 교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됨

매개자 또는 중계자의 역할⁸⁸⁾을 하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이 과학기술의 융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제대로 기여하려면 교육정책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학교가 변해야 한다. 합리주의적 탐구능력과 잘 개발된 창의력, 사회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이 학교를 통해 길러지기 위해서는 교사, 행정공무원, 학생, 학부모가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우선 사회의식 구조적 환경이 먼저 갖춰질 수 있도록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세계화 시대는 지역화시대이다. 우리의 학교가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구축과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양쪽분야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당국과 대학, 지역교육청 간의 삼각협력체제가 구축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닫혔었던 폐쇄적 학교문화를 일신해야 한다.⁸⁹⁾

4. 학생 및 우수교사 확보방안

세계화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외국어교육 강화 및 첨단과학 기술분야에 종사할 인재육성 등을 위해서는 먼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우수교사 확보일 것이다. 독일 교육연구부의 「델파이 조사보고서」⁹⁰⁾에 따르면 교육은 점증적으로 국제화의 경향을 보일 것이며 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자국의 영역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것은 특히 교육 자격증의 상호인정과 국제적 호환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우수교원 등 우수인력에 대한 시각은 국제성을 가진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88) R. F. Campbell et al, *Introduction to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pp.208-211.

89) 정기오와 3명 "교육개혁의 새 지평", 「21세기 새 지평교육개혁」 (교육개혁평가 연구회, 1997), p.368.

90) 델파이 연구보고서는 "지식기반사회의 잠재력과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연방교육과학연구 및 기술부(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rchs and Technology)가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한 '델파이 조사(Delphi Germany Survey 1996/1998)'에 관한 요약보고서를 1999년 4월 교육부와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에서 번역 발간한 내용을 정부여당인 새천년민주당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에서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 2001. 3」에서 전제한 번역자료임.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타 시·도와의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한이 있어도 국제자유 도시 추진을 위하여 먼저 교원수급자율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는 개발의 주체인 지방정부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도록 협력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채용방식에서 현행 교직과목 이수를 전제로 한 임용제도를 개선, 국제적 호환성이 부여된 교육자격증(학위)소지자 또는 필요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기간제, 계약직 임용 등의 개방형 임용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국적인 제도 시행보다는 ‘교육규제 자유지역’과 함께 시범운영되어야 기득권이 있는 교원단체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도내 대학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도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스스로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도 길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내 우수학생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매스컴 홍보와 아울러 학교에도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주도 미래의 방향에 대한 비전이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4.3% 정도 선호도를 보인 ‘외국 유명대학 분교’ 설치가 용역보고서에서는 중요한 과제로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령상 학교법인 형태로만 설치하고 있는 외국대학(분교 포함)의 경우 제주도내에서는 영리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도록 특례조항 설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센티브 정책면에서는 세금감면 등 지방 자체 해결능력이 있는 세금 인센티브 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이고 의욕적으로 제주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제주출신 우수학생 유치를 도모할 수 있는 대학 재학 중 학비지원과 취업 후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의 실시 및 우수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국내 유명 국립·사립대 유치도 여건이 허락하면 제주분교 형태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第 2 節 教育의 意識部門 改善方案

1. 제주인 정체성교육 방안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주인 정체성 약화가능성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제주도의 역사를 학교방송 시설 등을 통해 교육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지니게 하며, 전승민요나 방언, 세시풍속, 민속놀이 등을 다양하게 교육적으로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주인 정체성 형성의 요체인 향토언어교육을 제주도 전역에 걸쳐 초등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시행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되어 있다.

앞서 설문에서도 제주교육의 가장 중대한 과제로서 응답자들은 ‘외국어교육’, ‘세계화·정보화교육’, ‘교육시설 확충’보다도 ‘제주인 정체성’교육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는 실태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국제화의 성공에는 각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강화를 위한 인재의 양성, 정책과 제도, 규범과 관행 및 의식의 개혁 등 국제화를 위해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가치관(value orientation) 내지 가치에 대한 사고방식(paradigm of values)을 국제화시대에 어떻게 보존하고 전환시키느냐가 국제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근본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즉, 국제화란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주체성을 지니고 우리의 고유성을 세계보편으로 넓혀 감으로써 우리의 것이 단지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도 또한 귀중한 것임을 알리는 일련의 과정이다⁹¹⁾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문화정체성 보존은 국제자유도시와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적 관계로 해석할 수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학교의 정체성보존 교육보다 유·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통문화행사의 전승보존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여 학교에서의 전통문화 전승보존 교육의 강화, 유적지 순례, 보존교육 및 전통행사를 교육과정내 포함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1) 송상순, “국제화시대 가치관 교육”, 「국제화시대 제주교육」, 1995, pp.187-189.

현재 제주도내 교육과정에는 '제주인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주민요 계승 운동, 민속고유의 세시풍속 보내기, 전통행사 참여, 교원연수 지역문화유산 답사, 문화예술 체험교육⁹²⁾을 포함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학생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정체성 보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에게 먼저 제주전통을 이해시키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치관 교육과 연계된 자긍심 고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교재와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발, 보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원 연수 및 체험학습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제주어 보존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 및 교육과정에서도 연계지도 하여야 하며 제주어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마다 인터넷 사이버(cyber) '제주어대화방'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생 사이 또는 학생과 교사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간에도 제주어 토론 학습장을 만들어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제주어 사전을 DB로 구축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향토사에 대한 학습을 전개하여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치중하는 기능교육과 역사적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제주 정체성 보존의 가치가 역사성을 고려한 국제이해교육과 연계가 되도록 배려한다.⁹³⁾ 예를 들어 탐라국가의 탄생 배경, 몽고 침공과 항몽의 의미, 4·3사건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의 국제환경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의 정체성에 입각한 '세계평화주의' 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이다.

넷째, 문화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기구 및 정부에서는 제주문화유산 중 환경, 문화 및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을 '세계문화유산 등록 지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사를 면밀히 하여 2001년 4월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690건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때에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주도에 대한 자긍심과 제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정

92) 제주시교육청, 「제주시 교육추진 계획」, 2001, p.61.

93) 김종수, 앞의 책, p.103.

체성'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⁹⁴⁾

2.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제주출신 학생들이 진로의식을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은 92.1%가 대학교를, 진로선택 희망분야는 관광분야가 51.5%를 점하고 있으며, 산학협동프로그램 참가는 69.6%가 대학재학중이거나 대학졸업 후로 조사되어 도내학생의 진로의식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듯이 MarLand는 진로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바,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의 진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진로선택과 훈련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학교진로교육의 중요성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가 구축되어 제주도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분야별 구성원이 지역출신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와 '잘 사는 삶'에 대한 최초 가치기준인 경제적 이익을 향토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의 문제점은 실로 막중할 것이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서 제주도민은 미주대륙의 토착민처럼 그 위상이 전락되어 버릴 것이다.

이같은 배경하에 적어도 81.7%의 '우수 학생으로 인정받아도 제주도내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은 중요하며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행복한 개인으로서 또한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는 데 공헌해야 할 것이다. 즉 학생 개개인의 잠재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흥미와 적성, 의욕 환경에 알맞은 진학 및 직업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⁹⁵⁾

예를 들어 우리나라 향후 5년간 직업 전망은 ① 1차산업과 제조업고용 감소 ② 서비스업 고용 증가 ③ 학력수준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고용 증가 ④ 정보화, 소프트화, 서비스화에 따른 여성고용이 증가될 것이라는⁹⁶⁾ 정보를 토대로 종전의

94) 우리나라에서는 불국사등 7건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세계유산 예비목록 6건에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94년에 제출, 포함되어 있다.

95) 김충기, 「미래사회와 진로의 선택」(배영사, 1995), p.45.

진로교육보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세계시장과 자국의 경제흐름 등을 진단하여 교육내용에 포함되도록 진로교육의 모습도 전통적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세계화 및 지식기반사회 흐름에 맞춰 진로 교육내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진로교육의 변화에 대비한 직업기초 능력 보유성에 대하여 델파이 지식 조사내용을 통해 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보겠다. 델파이 지식 조사 ^{II}⁹⁷⁾에 따르면 ‘2020년에 요구되는 핵심직업 능력(key skills for year 2020)’의 중요도를 <표 5-2>와 같이 점수화 한 결과는 <표 5-2>와 같다.

<표 5-2> 2020년도의 개별적 직업능력의 중요성

(순위와 점수비율의 평균가)

핵심 직업 능력	학교/일반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
기술적·방법론적 학습 능력 (technical and methodological learning skills)	1순위 (2.38)	2순위 (2.26)	2순위 (2.17)
특정 부문 관련 능력 (specific subject-related skills)	6순위 (1.47)	1순위 (2.58)	1순위 (2.80)
심리사회적 기술 (Psychosocial skills)	2순위 (2.36)	3순위 (2.16)	4순위 (1.39)
외국어 능력 (Foreign language skills)	3순위 (2.30)	4순위 (1.84)	3순위 (1.91)
매체 활용 능력 (Media Competence)	4순위 (1.61)	5순위 (1.57)	6순위 (1.38)
다국가의 문화 이해능력 (Intercultural skill)	5순위 (1.48)	6순위 (1.23)	5순위 (1.46)
기타 능력 (other types of skills)	7순위 (0.39)	7순위 (0.38)	7순위 (0.39)

자료 : 새천년민주당,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 2001. 3. p.72.

96) 노동부 중앙정보관리소, 「한국직업전망서 1999」(도서출판 관악사, 1999), pp.6~11.

97) 델파이 II 지식 조사는 제2단계조사로서 고대회립의 ‘델파이 상담’과는 정반대로 “인간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무한한 가능성” : 로마클럽보고서(“No Limits to Learning Bridging the Human Gap: A Report to the Club of Rome”, 1979)에 해답을 도출하기 위한 독일 연방교육과학 연구 및 기술부에서 교육전문가 669명을 대상으로 2020년 개인이 필요한 핵심직업능력을 가르칠 교육제도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반교육(초·중·고)에서는 ‘전문분야 배양능력’은 덜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기술적·방법론적 학습능력’은 학교 등 일반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의 중요성 증가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2020년 지식기반사회에서 개개인은 복잡한 정보를 줄이고, 단순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개개인은 스스로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타진하고, 선택하고, 보류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 도표에서 ‘심리사회적 기술’과 ‘외국어 능력’은 거의 같은 공동 3순위로서 심리사회적 기술은 다양한 사회조직 내에서 적응해 나가는 일종의 기술이며 외국어교육은 오늘날 모든 학교기관에서 가르치는 요소이다. 여기에서 ‘다국가 문화이해능력’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맞물리는 중요한 과제로서 정치와 경영, 그리고 일의 세계가 점차로 세계화되고 여러 영역이 국제화되는 추세에서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다국가 이해능력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⁹⁸⁾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학교에서의 앞으로 10~20년 후에 국제자유도시화를 대비한 직업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첫째, 직업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적절한 주제를 교육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둘째, 자신과 타인들을 인식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 주체인 도민과 나 그리고 가족 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 등이다.

셋째, 상호접촉 및 직업과 관련된 타인과 연결을 통한 학습, 즉 산학협동 등을 통하여 개인과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습득능력과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유능한 인력에 체화된 지식과 능력을 분석하고 그 학습과정을 역추적함으로써 현장성이 높은 교육과정 개발관행도 확립해야 한다.⁹⁹⁾

98) 위의 책, pp.75-76.

99) 교육개혁평가연구회, 앞의 책, p.391.

3. 평화의 섬 구축을 위한 '평화교육' 방안

제주 '평화의 섬'의 기초가 되는 평화의 개념은 이념적·내부적 측면에서는 주체간 갈등과 대립이 없는 조화로움이 실현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고, 전략적·대외적 측면에서는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지역간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적 존립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평화의 섬' 모형은 동북아에서 제주가 군사적 대립을 극복한 '전략적 중립지대 모형' 정치적인 성격을 배제한 경제적 관점에서 번영과 복지의 요소가 중시되는 '평화, 번영, 복지의 섬 모형', 제주도를 학술적 차원에서 평화사상을 연구·전파하고 문화적 차원에서 '평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 거점 모형' 등과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한 '경제 특구화' 모형이 통합된 '통합적 접근 모형'을 들 수 있다.

각 모형들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제주를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로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¹⁰⁰⁾라고 하여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모형정립과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남북공동선언」이 합의, 발표되었다. 양측은 흡수통일도 무력통일도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존·공영의 평화통일을 모색하기로 했음을 발표문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도민갈등 해소 문제, 남·북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수준에서의 개념정립 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세계평화와 연결되는 확고한 내용이 정형화되어 질 것이다.

평화교육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 경우 77.9%가 인식이 저조하였으며, 평화교육에 비중을 두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교직종사자는 '남북통일교육'을, 학생은 '세계평화교육'을 선호하여 전쟁을 직·간접으로 체험한 기성세대와 그렇지 않은 학생의 인식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평화교

100) 김부찬, 앞의 논문(주33), p.37.

육'의 개념정립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이러한 국내적 내부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정치적 갈등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교육'의 방향과 교육을 우선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주도의 입장에서 몇가지 '평화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4·3사건에 대한 도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4·3위령공원 조성을 도민 정서에 맞는 수준으로 마무리하여 이를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평화를 창조시키기 위한 제주도민의 의식이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제주 4·3사건 치유과정이 국제적인 모델로서 '평화의 섬' 지정의 모태가 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자체적 평화교육 내용 정립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

둘째, 남북한 통일교육에 관해서 2001년 2월, 740명의 제주시내 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58.0%가 현 상태 또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으며, 통일 후 정치, 경제, 사회의 변동 정도에 대하여는 55%가 '예측 힘듬'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63%가 '약간 적개'한다고 했으며, 북한의 모습과 가까운 것에 대한 질문에는 56%가 '자유없는 폐쇄국가'라고 조사되고 있다.¹⁰¹⁾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교육의 방향은 시대의 변화, 문화의 변화에 부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선 실천이 가능한 민족 동질성 회복교육과 문화적 동질성 회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계평화주의에 기초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기관의 체계적인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환경 즉, 효과적인 정규교육이 제공되어야¹⁰²⁾ 한다. 현행 교과과정에서는 유네스코 모형인 '박물관'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사회과 통일교육시간을 병행하여 국제 이해교육과 통일

101) 황미나, "고등학생의 통일의식 조사분석", 「교육제주」, 봄호, 2001, pp.38-39.

102) Hallak, J. and Poisson, M, *Public Education Authorities : Renewing Legitimacy*, Paris, IIEP, 1997 (Christoper Williams 재인용;주 103).

및 북한 바로 알기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¹⁰³⁾

셋째,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서 학생은 세계평화주의를 평화교육의 대상으로 가장 선호함에 따라, 제주도 측면의 4·3문제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가 측면의 과제는 시대환경적 변화에 부응해 나가되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 교육은 동북아 지역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아가서 관용과 화해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세계시민 정신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국제화, 세계화는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을 가져왔고 지리적 개념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국제통합의 현상은 향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¹⁰⁴⁾

따라서 외국과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하여 학생들이 국내외 테마여행시 정례적 과제로 선정하고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인 정착촌 등을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의 경제리스크 컨설팅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이 살기 불편한 나라 10개국 중 한국이 9위로 뽑힌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문화적 이질감’이 심각한 문제로서¹⁰⁵⁾ 우리 것만을 고수하는 폐쇄적인 행동양식이 외국인들에게 심하게 이질적인 것으로 비쳐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도 섬지역이 갖는 특수성에 비추어 배타성이 심각하므로 이러한 배타적 이질적 요소들을 교육과정을 통하여 제거해야 하는 것이 ‘평화교육’이 추구하는 기초적인 세계평화주의 교육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론과 사회단체의 평화에 대한 개념정립을 일원화하여 제주사회구성원이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된 의식통일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넷째, ‘평화의 섬’을 구축함으로써 제주도가 평화의 상징지역으로서 국제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남북이 공존하면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통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미래지향적 지혜와 따뜻한 동포애가 필요하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열어가기가 필요하다.

103) Christoper Williams, “교육과 인류의 생존”, 「국제이해교육」, 제4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 pp. 117-145.

104) J. Urry, “Comtemporary Transformations of Time and Space”, P. Scott(ed.), *The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Buckingham, SRHE and Open UP, 1998, pp.1-17.

105) 제주동여자중학교, 「국제이해교육편람」, 1999, p.194.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우리사회 내부의 통일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¹⁰⁶⁾ 올바른 통일교육만이 ‘평화교육’의 지지기반이 될 것이다.

第 3 節 教育의 法·制度部門 改善方案

1. 교육규제 자유지역 모형 개발 방안

행정 규제기본법에 의하여 1998년 4월 18일 발족된 규제개혁 위원회는 1998년에 총 10,968건의 등록 규제 중 5,430건을 폐지하고 2,411건을 개선하여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룩하지 못한 규제개혁의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아직도 낮다. 즉 규제의 총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행정규제들이 문제가 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법령의 정비 기간, 일선 공무원의 인식부족, 행태개선의 미흡도 체감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¹⁰⁷⁾ 그러나 교육부문에서는 규제대상이 최종적으로 주민이 아닌 학교 일선 기관 공무원이 될 것이다. 교육행정은 학생·학부모를 직접 당사자로 규제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기관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평생교육 기관 설립, 외국인 학교 설립 등은 법률이나 조례로서 정하여 놓고 있다. 심각한 교육규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표 4-23>과 같이 ‘중앙부처 법률 또는 내부통제’가 전체 48.0%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성문화된 법·제도적 규제보다는 각종 지침과 내부공문에 의한 규제정도가 심각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는 디지털시대 환경에 걸맞는 규제개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발상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에도 시장의 원리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래로

106) 최병보, 「통일문제이해」(통일교육원, 2001), p.1.

107) 김일섭, 앞의 논문(주69), p.3.

부터의 (바텀-업)의 규제개혁 흐름을 만들어서 위로부터의(톱-다운) 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교육특성에 맞는 교육규제자유지역 설정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교육발전을 지향하고 고비용 저효율 교육체제를 탈피하며, 학생·학부모와 관련된 각종 교육규제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¹⁰⁸⁾ 특히,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의결제도에 의한 비효율적인 행정제도를 개선해야만 한다.

규제자유지역 교육부문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자율적 교육행정 권한 확대를 위한 교육자치제도의 운영이다.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 심의의결제도¹⁰⁹⁾를 어느 한 쪽으로 일원화해야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교육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완전 자립형 고등학교의 허용으로 학생 모집, 선발, 교육과정 운영 납입금 등 모든 부문에서 자율성을 가지면서 정부 또는 교육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은 고등학교의 허용이다. 이와 같은 것은 국제자유도시의 교육부문에서 취약한 외국어고교, 국제대학과 연계된 관광특수목적고 등¹¹⁰⁾ 국제화 시대 수요에 맞는 고등학교를 민간부문에서 국가재정의 손실을 수반하지 않고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학교 선택제 및 제주도 전역에서 자유롭게 학교를 지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평생학습시대로 전환되어가는 시점에서 사교육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설학원의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성인용학원을 탈규제학원으로 완전 허용한다.

다섯째, 학점은행제의 현행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교육기관이 아닌 민간업체

108) 김홍주, “규제자유지역의 교육부문 모형”, 「규제자유지역 제주도 적용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0), p.37.

10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1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

산학협동기간에 대한 학점부여, 원격 사이버 학습에 대한 점수 인정, 검정고시를 완화하여 학교의 일부 이수기간에 대한 점수 인정¹¹¹⁾, 각종 학교 및 교정기관이 설치한 학교¹¹²⁾의 졸업 또는 이수시 과목 또는 졸업인증제도를 시행하여 학교내 부적응아의 공교육기관 책임 이수행태를 탈바꿈시킴으로써 사회속에서도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교육제도의 정착 등이다.

다음은 제주도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표 4-24>에서 교육규제개혁의 방향은 교직종사자 및 학부모인 경우, '교육규제자유지역' 설정 방향으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포함하여 규제자유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49.6%가 희망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규제완화 대상 설정범위는 <표 4-25>와 같이 60.5%가 '제도와 교육학예 모든 부문에 대하여 완화'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부문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은 특별법에 포함하여 교육제도 및 학예 모든 부문에 규제완화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으며, 국제자유도시가 실질적으로 성공리에 수행되는 것 여부에 관계없이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 주도에 의한 개혁의지보다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기본목표를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규제는 대치하되, 환경, 안전, 보건 등 국민전체 공익과 관련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는 수단과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총량 관리체계를 확립, 국가 경쟁력을 10위권으로 향상시키는 계획¹¹³⁾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이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인 정책기획단에서 공청회 등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1년 7월에 확정한다¹¹⁴⁾는 일정에 맞춰 특례법의 시행령 또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가시적인 근거조항이 포함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 제3조1항.

11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9조 내지 제103조.

113) 정현용,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1998 규제개혁백서」(규제개혁 위원회, 1999), p.25.

114) 김승종,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민주당도 의견', 제주일보(2001. 5.18). 제1면.

2. 기초교육 전문가 정책 참여 방안

초·중등 교육연계 추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75.7%가 '연계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교원인 경우도 74.6%가 국제자유도시 정책과 초·중등교육이 연계하여 추진해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4-2>

따라서 정책담당기구에서는 연계추진이 필요한 분야를 교육당국자와 협의를 거쳐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표 4-26> 조사결과에서 49.1%가 '정책내용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는 반응을 참고해 볼 때 기초교육과 관련된 부문에 한해서는 교육전문가의 협조적 참여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방법은, 정책추진기구에 책임있는 교육전문가를 위촉, 각종 협의회, 공청회 등에 참여시켜 도민들에게 정책내용에 대한 교육부문의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본부는 2001년 하반기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¹⁵⁾ 제주도 당국에서는 제주도추진본부에 기초교육전문가 참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15) 김승종, '제주도추진본부 올 하반기 승인될 듯', 제주일보(2001. 5.13). 제1면.

第 6 章 結 論

세계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인류는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21C는 지식이 개인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기존 산업社会의 정부조직과 사회, 경제, 학교제도는 이러한 지식기반社会의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학교나 행정정책의 모습도 시대적 요청에 다양하게 적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세계화·정보화는 경제, 환경, 문화, 정보,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1C의 대표적 사회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사회집단들과의 관계에서 중립성을 견지할 때 자생적으로 강화될 공동체 의식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지방 또한 2000년대 지방화 추세에 걸맞게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주에서는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제주도의 미래 비전으로 삼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이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2010년 제주의 미래는 외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청정한 환경, 다양한 문화유산과, 완벽한 사회기반 시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으로 세계각국의 기업가들의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는 현재의 53만에서 6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관광객은 940만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하며 고용기구도 25만명에서 32만명으로 증가, 경제적 풍요와 함께 국가발전의 전초기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¹⁶⁾

교육과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는 유능한 교육인력을 유치해 제주의 교육수준을 고양하고, 세계수준의 언어학교를 설립하고, 유수한 외국대학과 연계해 관광관련 학교를 설립하여 외국의 대학과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해 생명공학 및 청정에너지 연구를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종 용역 보고서에서 초·중등 기초교육에 대한 정책방안을 미흡하게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기초교육의 방향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아울러 국제자유도시의 역기능 저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연계추진의 필요성과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초·중등 교육실태 분석 및 문제점으로 첫째, 교육의 과정 분야에서는 기초교육과 연계추진하는 과제로서 정책과 교육 연계추진이 미흡하다는 점과 외국어 교육강화 문제에서는 학교교육과정 강화와 외국어 학교 훈련 문제, 지식 정보화 및 세계화 교육문제에서 역시 학교 교육과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우수인력 확보면에서는 교사 수급자율권 확보와 임용방식 개선 및 인센티브 정책의 다양성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둘째, 교육의 의식 분야에서는, 제주의 문화정체성 확보방안으로 학교전통문화 보존교육이 학생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해 왔다는 문제점, 직업진로 선택과 산학 협동면에서는 학교간 기업체간 그리고 국제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교육은 정책추진 부서와 교육 기관간에 개념정립과 주체적 기능에 대한 역할 분담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다.

셋째, 교육의 법·제도부문에서는 제주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설정하는 문제와 기초교육전문가의 정책추진기구 참여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과정 부문에서는 기초교육과 연계추진을 위하여 초·중등교육과 정책담당 ‘교육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외국어(영어) 교육강화를 위해서는 영어

116) 김승종,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과 미래”, 「제주저널」, 제4호, 2001, p.24.

교사의 회화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및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원어민 교사의 자율 확보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2010년까지 되어 있는 외국어고교의 설립시기를 앞당기고, 외국어 학습관 프로그램을 조기개발하고, 영어 제2공용어 추진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교류협력 부서 설치 및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세계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주의 독자적인 교육과정과 정책 추진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사와 학습자의 기존 주입전달식 교육 방법에서 교사의 역할을 지원상담자 역할로 전환시키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 방식개선이 필요하다.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원수급자율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하고, 교원채용방식과 관련하여 학위소지자 또는 필요한 분야 우수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간제, 계약직 등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국내·외 유명대학 제주분교 설치 및 자율시범학교 운영도 정책과제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의 의식부문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제주인 정체성 교육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에서 가치관교육을 강화하고 제주어 보존을 위한 사이버 '제주어 대화방'의 설치 및 토론학습 강화에 힘쓰며, 제주어 사전 DB를 구축하고 제주향토사 교육을 강화하여 국제 이해교육과 연계하며, 제주문화 또는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하여 정체성 교육의 산교육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의 법·제도 부문 개선방안으로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의결제도를 일원화하고 제주도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문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정책내용에 따라 기초교육 전문가의 국제자유도시 개발기구 참여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추진 능력과 외교력은 마스터플랜의 실천과정에서 더욱 필요로 한다. 이제부터는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조를 구하고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명실공히 앞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될 즈음 제주도민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섬의 '토착민'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제주의 주역들을 우수인력

으로 양성시켜 정체성을 겸비한 세계시민으로서 제주개발의 주역이 되도록 경제, 금융, 관광정책과 함께 교육부문 정책에 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I. 國內 文 獻

1. 저서

-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한울출판사, 2000.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출판사, 1999.
- 김종수,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 한울출판사, 1995.
- 김충기, 「미래사회와 진로의 선택」, 배영사, 1995.
- 소홍렬외 11명, 「정보화시대, 교육의 선택」, 대화출판사, 1997.
- 안기성, 「교육학 개론」, 학지사, 1993.
- 이성봉·김종근·이형근,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 대외경제연구원, 1998.
- 이화수, 「정보화시대 교육의 정책」, 대화출판사, 1997.
- 이홍수, 「외국어 습득 및 교육과정론」, 한국문화사, 1999.

2. 논문

- 구현만, “세계화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권용희, “국제화시대의 사회인식 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부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의 및 법·제도적 문제”, 「제주발전연구」, 제3호, 제주발전연구원, 1999.
- , “남북교류 협력과 제주 ‘평화의 섬’”, 「제주발전연구」, 제4호, 제주발전연구원, 2000.
- 김일섭, “규제자유지역의 의의 및 필요성”, 「규제자유지역 개념의 제주도 적용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0.
- 김홍주, “국제자유지역의 교육부문모형”, 「규제자유지역의 제주도 적용 방안」, 한

- 국경제연구원, 2000.
- 변창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개선모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송기주, “교육에 있어서 갈등과 그 교육적 해소”, 「교육원리 연구」, 제4권, 1999.
- 송상순, “국제화시대의 가치관 교육”, 「국제화시대 제주교육」, 제주도교육청, 1995.
- 송재호·정승호, “제주도 관광 조직 체계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주발전연구」, 제4호, 제주발전연구원, 2000.
- 이돈희, “21C 교육과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반성과 과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2000.
- 이승종, “지방교육자치제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제46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 이용하, “교육시장 개방과 교육기관의 국제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정진곤, “학교교육과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반성과 과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2000.
- 황미나, “고등학생의 통일의식 조사분석”, 「교육제주」, 봄호, 제주도교육청, 2001.

3. 기타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마당 21」, 3월호, 2001.
- 교육부,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2000.
- 교육부,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 방안」, 2000.
- 노동부 중앙정보관리소, 「한국직업전망서 1999」, 1999.
- 문정인외 5명,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 제주도교육청, 1995.
- 새천년민주당, 「지식기반사회와 교육」(독일 교육연구부의 델파이 조사보고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 정기오외 3명, “교육개혁의 새지평”, 「21세기 새지평 교육개혁」, 교육개혁평가연 구회, 1997.
- 정두원외 5명, 「제주진로교육」, 2000.
- 정현용,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1998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1999.
- 제주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0.
-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 세미나 보고서」, 1995.
- 제주도교육청, 「통계로 본 제주교육 100년」, 1999.
- 제주도교육청, 「21세기의 제주교육 기본구상」, 2000.
- 제주도기자협회, 「제주저널」, 제4호, 2001.
- 제주동여중, 「국제이해교육편람」, 1999.
- 최병보, 「통일문제 이해」, 2001.

II. 外國 文獻

- Hallak, J. and Poisson, M. *Public Education Authorities : Renewing Legitimacy*, Paris, IIEP, 1997.
- Kuhn, T.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2.
- R. F. Campbell et al, *Introduction to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 Canale & Swain.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Vol. 1, 1980.

- C. Dimmock, "School-Based Management and Linkage with the Curriculum" , *School-Based Management and School Effectiveness*, C. Dimmock(ed), London, Rontledge, 1993.
- Chapman, J. and Boyd, W. L. "Decentralization, Devolution and the School Principal: Australian Lessons of Statewide Educational Reform" ,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2/4. 1986.
- Dillon. B. & Wright. "Educational Predictions : Past, Present and Future" in Lane Jennings & Sally Cormish. (eds). *Education and Future-Selected Articles on Education from the Futurist*. World Future Society, Washington D. C, 1980.
- Hoyt, Kenneth B. An Introduction to Career Education : *A Policy Paper of the U.S. Office of Education*.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74.
- J. Urry, "Comtemporary Transformations of Time and Space" , P. Scott(ed.), *The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Buckingham, SRHE and Open UP, 1998.
- Littlewood, W.T. "Language Vari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 *Applied Linguistics*, Vol. 2, 1981.
- Marland, Sindy P. *Career Education Now*. "Paper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 Houston, Texas, 1971.
- Odden, E. R. and Wohlstetter, P. "Marking School-Based Management Work" , *Educational Leadership*, 52-5,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on, Yun-Su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oo-Chan, Ph. D.

At this time of internationalization, our greatest concern is Jeju's basic education. Although it is important to present an alternative educational project corresponding to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global village, in terms of helping Jeju citizens live well, we need to rethink whether Jeju education itself is related to this or not.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provide an alternative program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education, excluded from the three key goals of the final re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The concret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study and analysis o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linki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in the process fulfilling one of the key goa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Free International City.'

Secondly, this study suggests new guide lines and direction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to assist in the establishment of 'a Free International City' for the whole of Jeju island.

Third, this paper is inquiring into the necessity of quality education and method and content of education for solving the problems which accompany the construction of 'The Island of Peace.'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means to solidify Jeju citizen's identity allowing them to play their own roles in the preparation of finally completing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

Fourth, from this study we want to analyze the current reality of the education problem and presen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a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he necessity of designating this 'a Free Zone of Education' .

For this method of study, both actual proof through investigation and inquiry were conducted consisting of interview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long with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900 in all were the polling sample.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were interviewed and documents from the contents of the service report on the basic plan and universal validity for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were done.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lead to the following findings. In the area of education course, knowledge information, upgrading student's foreign language ability, strengthening the knowledge of the global village, breeding of competent students and teachers to develop excellent manpower, and connecting educational agencies and development departments of 'the Free International City' are the most urgent.

In the part of the content of education,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relating as follows: namely, the preserving of 'Jeju's Cultural Identity,' leading students to make positive and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future after graduation, enlarging occupational education and education on peace for the designation of 'Island of Peace' .

In the area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its guidelines, it is important for Jeju province to be designated as 'a Free Zone of Education' .

To solve the problems above, we suggest to set up an Education Depar-

tment Committee for connecting policy, the training of able teachers, cre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for foreign languages and the designation of English as second official language. In addition, to cope with the knowledge based society, the teachers and students' roles should be reassessed. Also, we need to encourage some foreign schools in Jeju Province to have a relationship like mother and sister schools with well-known colleges, domestic and abroad.

In the area of consciousness education, to preserve Jeju's cultural legacy, the preserving of Jeju province local language and the reinforcement of effective school curriculum have been suggested. To have educational guidelines that keep pace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s, the modelling of Jeju Province leading to a comprehensive 'Free Zone of Educ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experts should be proposed to the public.

Lastly, education policy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together with policies on economy, finance, and tourism for Jeju citizens so that they themselves can play their own roles in successfully constructing 'a Free International Jeju city'.

설 문 지 (A)
(교직원 ·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 설문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초·중등 기초교육분야의 합리적 교육방향을 연구하는 학위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문의 응답결과는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며 논문작성 자료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 4.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전공

원 윤 수(E-mail : yunsu4322@hanmail.net)

설문 내용 (교직원·학부모용)

해당되는 항목에 표 하여 주시거나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신분은?

- ① 교원
- ② 교육전문직
- ③ 지방공무원
- ④ 학부모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이하
- ② 초대졸
- ③ 4년제대졸 이상
- ④ 기타

4. 학교에 다니는 자녀수는?

- ① 없음
- ② 초()명
- ③ 중·고()명
- ④ 대학생()명

5. 귀하의 거주지는?

- ① 제주시
- ② 서귀포시
- ③ 북제주군
- ④ 남제주군

6. 귀하의 나이는?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이후

7. 귀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향후 제주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긍정적
- ② 조금긍정적
- ③ 그저그렇다
- ④ 조금부정적
- ⑤ 매우부정적

8. 귀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초·중등 기초교육 연계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
- ② 조금 필요
- ③ 그저그렇다
- ④ 조금 불필요
- ⑤ 불필요

9.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현재 초·중등 학교에서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할 교육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외국어교육
- ② 세계화, 정보화 교육
- ③ 제주인 정체성교육
- ④ 교육시설 확충
- ⑤ 평화 및 국제이해교육
- ⑥ 기타()

10.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 내용으로 볼 때 보통 수준의 학생이 고교를 졸업했을 때 외국인과 생활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의사소통 원활
- ② 의사소통 가능
- ③ 의사소통 일부 가능
- ④ 의사소통 어려움
- ⑤ 의사소통 안됨

11. 제주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중학교 교육과정 강화
- ② 외국어학교 어학과정 이수
- ③ 사설교육기관 이수
- ④ 대학강의 수강
- ⑤ 기타()

12. 현재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세계화 및 지식정보교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지방자치단체 사회교육 프로그램
- ② 초·중등 기초교육 프로그램
- ③ 대학 프로그램
- ④ 각종단체 프로그램
- ⑤ 기타()

13. 현행 학교교육과정에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과정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히 반영
- ② 충분히 반영
- ③ 보통
- ④ 미흡하게 반영됨
- ⑤ 거의 반영안됨

14.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문에서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에 외국 유명 대학 분교 설립 유치
- ② 국제관광대학과 연계 활성화
- ③ 우수인력 인센티브제공 제도화
- ④ 도내대학 질적 수준 향상
- ⑤ 기타()

15. 국제자유도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초·중등 기초교육을 담당할 우수교원 확보방안은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원수급 자율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하되 인건비 상승분은 정부 또는 제주도에서 지원
- ② 초·중등 대학 교원간 전문성 정도에 따라 이종 교차 임용방식 도입
- ③ 교육전공자격증 뿐만 아니라 특수분야 자격증 소지자도 임용자격 대상자로 완화
- ④ 개방형 직위 형태로 교원채용 방식 다양화
- ⑤ 기타()

16.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제주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문화정체성 보존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어 전승보존
- ② 전통문화행사 정례화
- ③ 유·무형문화재 전승보존
- ④ 학교의 정체성 보존교육
- ⑤ 기타()

17. 국제자유도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방안은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력 양성기관에 지원
- ② 도내업체 입사후 개인지원
- ③ 양성기관과 개인지원 병행
- ④ 도내기업 입사전 학비지원
- ⑤ 기타()

18. 향후 국제도시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여건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주어진다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자녀를 제주도에 거주시킬 의향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① 반드시 거주시킨다
- ② 가급적 거주시킨다
- ③ 거주를 권고한다
- ④ 본인 의사를 따른다
- ⑤ 관심없다

19.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평화의 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학계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평화교육'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그저그렇다
- ④ 모르고 있다
- ⑤ 전혀 모르고 있다

20.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교육'의 담당주체는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자치단체
- ② 초·중등 교육기관
- ③ 대학
- ④ 언론기관
- ⑤ 기타()

21. ‘평화교육’이 실시된다면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 4·3과 도민화합
- ②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교육
- ③ 동북아평화주의
- ④ 세계평화주의
- ⑤ 기타()

22.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초·중등 교육분야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시설 확충
- ② 교육규제 완화
- ③ 교육기관 자율경영권 확대
- ④ 교사수급 자율권 확보
- ⑤ 기타()

23. 귀하께서는 교육분야 법·제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심각
- ② 조금심각
- ③ 보통
- ④ 별로 심각하지 않음
- ⑤ 심각하지 않음

24. 귀하께서는 교육부문에 규제가 심각하다면 어느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 법 또는 내부통제
- ② 도의회 등 자치기관 조례 또는 내부통제
- ③ 교육청 등 행정기관 행정 통제
- ④ 학교운영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관 간섭
- ⑤ 기타()

25.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교육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떤 모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포함하여 제주도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설정
- ② 현행 제도권내에서 중앙부처 방침에 따라 추진
- ③ 제주도교육기관 독자적으로 ‘교육규제 자유지역’ 지정 추진
- ④ 제주도교육기관 자체적으로 교육규제내용 발굴 폐지 추진
- ⑤ 기타()

26. 귀하께서는 제주도를 ‘교육규제 자유지역’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규제 완화 대상 설정 범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교육 법·제도 부문만 완화
- ② 교육행정 조직, 교육위원회, 도의회 등 제도와 교육학예 모든 부문에 대하여 완화
- ③ 교육행정 조직 및 교육학예에 관한 부문만 완화
- ④ 외국인과 관련된 교육규제 부문만 완화
- ⑤ 기타()

27.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초·중등 기초교육전문가의 정책 참여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정책 추진 모든 분야 참여
- ② 정책내용에 따라 참여
- ③ 기초교육 부문만 참여
- ④ 교육분야는 모두 참여
- ⑤ 기타()

오랜시간 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 문 지 (B)
(학 생 용)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본 설문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초·중등 기초교육분야의 합리적 교육방향을 연구하는 학위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문의 응답결과는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며 논문작성 자료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 4.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전공

원 윤 수(E-mail : yunsu4322@hanmail.net)

설문 내용 (학생용)

해당되는 항목에 V 표 하여 주시거나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는?

- ① 제주시 중학교
- ② 북제주 중학교
- ③ 서귀포·남군 중학교
- ④ 인문계남자고
- ⑤ 인문계여자고
- ⑥ 실업고

2. 학생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3. 학생의 나이는?

- ① 14-15세
- ② 16-17세
- ③ 18-19세
- ④ 20-21세

4. 학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안다
- ② 잘 안다
- ③ 조금 알고 있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5. 학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공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성공
- ② 조금성공
- ③ 모르겠다
- ④ 성공희박
- ⑤ 성공불가능

6. 학생은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제주에 첨단과학시설, 관광분야 등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외국이나 서울 등지에서 우수인력으로 인정받아도 제주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갈 의향이 있으신지요?

- ① 매우긍정
- ② 긍정
- ③ 보통
- ④ 부정
- ⑤ 매우부정

7. 학생은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생활 외국어(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의사소통 원활
- ② 의사소통 가능
- ③ 의사소통 일부 가능
- ④ 의사소통 어려움
- ⑤ 의사소통 안됨

8. 학생은 외국어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교육과정
- ② 외국어학교 훈련
- ③ 사설교육기관 이수
- ④ 대학강의
- ⑤ 기타()

9. 학생은 현재 중·고교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교육이 앞으로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도움
- ② 조금도움
- ③ 그저그렇다
- ④ 미흡
- ⑤ 아주미흡

10. 세계화 및 지식정보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습니까?

- ① 지방자치단체 교육 프로그램
- ② 학교 프로그램
- ③ 대학 프로그램
- ④ 사회단체 프로그램
- ⑤ 기타()

11. 제주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한 문화정체성 보존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어 전승보존
- ② 전통문화행사 보존
- ③ 전통 유·무형문화재 보존
- ④ 학교의 정체성 보존교육
- ⑤ 기타()

12. 학생은 최종학력 이수를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고등학교
- ② 대학교
- ③ 대학원
- ④ 외국대학

13.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진로를 바꾼다면 어떤 분야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 ① 관광분야
- ② 과학기술분야
- ③ 국제금융분야
- ④ 회의산업분야
- ⑤ 기타()

14. 학생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이 전전되어 산학협동직업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고교재학 중 희망
- ② 고졸 후 희망
- ③ 대학재학 중 희망
- ④ 대학졸업 후 희망
- ⑤ 기타()

15.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평화의 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학계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평화교육’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요?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그저그렇다
- ④ 모르고 있다
- ⑤ 전혀 모르고 있다

16.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담당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① 초·중·고
- ② 대학
- ③ 자치단체
- ④ 사회단체
- ⑤ 매스컴

17. 학생이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평화교육’ 분야는 어느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북통일교육

- ② 제주4·3과 도민화합

- ③ 동북아평화

- ④ 세계평화주의

- ⑤ 기타()

18. 학생은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에 어떤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외국 유명 대학분교 설치
- ② 국제관광대학 연계 활성화
- ③ 우수인력 인센티브 제도화
- ④ 도내대학 수준 향상
- ⑤ 기타()

오랜시간 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